보이차 전문점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H.P 017-411-088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2월 8일(음력 1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 564 호

경내지 출토 유물 사찰이 주인

의정부지법 "회암사지 출토유물 회암사 소유" 판결
월정사 등도 소송준비 … 관련법 개정 등 과제는 여전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답은 국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사찰과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해당 사찰에 소유권이 인정된다.

문중 소유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혈맥을 인정해 문중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화재청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사찰이라 할지라도 스님들의 법맥이나 법계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찰 경내지 출토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혈연 중심적 사고에 익숙한 문화재청이 옛날 사찰에 살던 스님들과 현재 살고 있는 스님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사찰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환 움직임 거세질듯

그러나 이같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 합의 12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양주 회암사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있는 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04년 12월 29일 문화재청과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월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암사가 소실되어 없어졌지만 이후 조금 떨어진 곳에 현재의 회암사를 재건해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옛 회암사와 현 회암사를 동일한 사찰로 봐도 무방하다"며 "회암사 소유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현재의 회암사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찰이 경내지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권리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사찰 경내지 출토 성보문화재에 대한 반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교구본사인 봉선사 혜문 스님은 "불교 탄압책에 의해 불타버린 회암사를 지켜온 불교계의 노력과 사찰의 연속성을 법원이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에 대해 제자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찰 경내지 발굴은 1965년 분황사 건물지에 대한 발굴에서부터 2005년 선암사 경내 유적발굴까지 총 63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가운데 출토문화재가 사찰로 돌려진 사례는 도갑사, 나주 운흥사, 실상사, 축서사 등 4곳에 불과하다.

'관련성' 인정이 열쇠

특히 사찰 이름이 분명하게 명기된 유물조차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평창 월정사의 경우 최근 실시된 8각9층석탑 및 석조보살좌상 주변 발굴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출토된 '月精(월정)'명 암막새 등 다수 사명이 있는 기와류 등 43점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월정사와 함께 최근 발굴 조사를 마친 영동 영국사, 남원 실상사, 울산 동축사 등도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에 대한 반환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사찰이나 불교법식과 전혀 관련없는 문화재가 아닌 이상 불교의 종교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유산으로 해당 사찰에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존 사찰 경내지 및 소유 토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었다고 해도 해당 유물의 소유권이 현존 사찰에 있다고 일괄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찰의 법맥의 연속성, 해당 유물과 사찰의 관련성 등을 밝힌 이후에 소유권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양주 회암사 소송을 계기로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법령 보완 및 행정지침의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46조 제1항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 신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략)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찰 출토 매장문화재는 사찰의 연속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30일간의 경찰서장 공고 및 거치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토 문화재에 대해 해당 사찰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공고 기간에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더라도 30일동안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 사찰이 문화재 당시의 사찰과 동일한지 여부 등을 해당 사찰이 직접 입증하게 되어 있어 짧은 기간동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폐사지 유물도 논의 대상돼야

조계종에서는 출토 유물과 사찰의 관계, 사찰의 연속성 문제를 결정할 전담 기구 설치를 명문화해 줄 것과 공람 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성보문화재 관리를 위해 사찰 성보박물관의 역량 강화와 문화재 관리 시설을 늘리는 등 사찰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 방안에 대한 노력도 강구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법과 하위 법령들이 출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과 보존 관리가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단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효율적인 성보 문화재 관리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찰 경내지 이외의 폐사지 등 불교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규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인사에서 만나는 백남준의 예술혼

1월 30일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을 다수 남겼다. 이제 그의 육신은 만날 수 없지만 뜨거운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백남준은 2002년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높이 7미터(천정화 포함) 길이 10미터 크기의 대작 '팔만대장경'을 설치했다. 고려대장경의 조성 과정, 중생의 염원, 우주의 무량함 등을 그림과 12개의 모니터를 동원해 종합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백남준씨가 불교계에 준 큰 선물이다. 관련기사 12 · 19면

해인사=배지선 기자

엄정수사 · 진실규명 촉구

종단협, 황우석박사 관련 성명내기로

4월 중국서 '세계불교포럼'

황우석 박사와 관련,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주장이 공식 제기된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월 3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 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회원일동 명의로 2월 10일 이전에 황우석 박사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항주와 주산에서 중국불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불교포럼'에도 참여키로 결의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의로 5백톤 내외(싯가 2억3천만원)의 요소비료를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중파 방송인 경인방송의 기독교계 인수시도에 대해 내주안에 불교계의 우려를 담은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키로 했다.

종단협은 올해 △3 · 1절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3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4월) △봉축법요식(5월 5일) △6 · 15 기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6월) △한국문화 해외에 알리기 사업(연중) △8 · 15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8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10월) 등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면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시방세계 7면
조계타운 뜬다
무스탕을 아시나요? 8면
대학병원불자회 信바람 9면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14면

'맞춤형' 불교정보 · 생활의 지혜 · 감동깊은 이야기
붓다뉴스 이메일 서비스 시작
buddhanews.com 2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설 연휴 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불교음악학과 첫 개설

순천 명신대, 불교음악협회와 협력 체결 … 20일부터 원서 교부

불교계 최초로 불교음악학과가 생긴다. (사)불교음악협회(이사장 반영규)는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총장 이종필)와 산학협력을 맺고 불교음악학과를 개설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명신대학교 불교음악학과는 불교계 최초의 현대음악 전공 학과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은 합창지휘,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범패 등이다.

강사진은 명신대 음악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불자음악가들을 섭외하고 있다. 범패 전공의 경우 태고종 봉원사의 옥천 범음대학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불교음악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불교 연주 단체와 연계, 현장적응 및 실기강화를 위한 인턴제 시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음악학과 설립을 주도한 명신대 기획실장 이윤주 교수(음악학과)는 "불교음악학과의 개설로 현대불교음악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에서 활동할 음악가 양성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월 20~25일. 실기와 면접은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02)725-7527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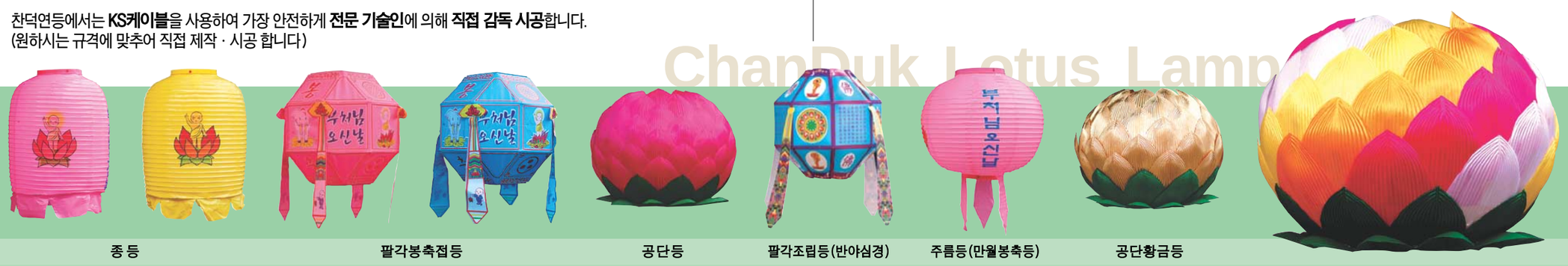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지관스님 "화합이 중요" 운산스님 "종단사일뿐"

조·태 총무원장 <태고종사> 견해차 해소

신년 인사 자리서 오해 소지 일소

<태고종사(太古宗史)> 발간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였던 조계종과 태고종간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해하는 분위기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조계종은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회가 7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한국불교 태고종의 역사를 정리한 이 책의 일부 문구들이 조계종을 폄하했다며 조계종 기관지를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왔다.(본지 563호 2면기사 참조)

그러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1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정릉 경국사에 신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갈등 해소의 실타래가 풀렸다.

이날 운산 스님은 "<태고종사> 발간은 한국불교태고종의 해방이후 종단사를 태고종측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라며 "조계종을 폄하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므로 조계종에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도 "그런 목적이라면 이해하겠고 어쨌든 앞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장 수열 스님도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하지만 태고종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을 가지고 일부 문구에 문제 제기를 하며 마치 큰 분쟁이 있는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스님도 "<태고종사> 발간에 대해 현재로서 종단의 공식적 입장은 없으며 앞으로 좀더 논의를 거쳐 결정할 생각"이라며 "최근 두 종단의 화합분위기를 고려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밝혀 더이상의 논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삼보륜 가사'로 통일

조계종, 의제 시행 선언

조계종 총무원은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정체성 확립과 종단 법계제도 정착 및 승가위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종단 가사의 통일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총무국장 정범 스님은 "그동안 종단 스님들의 의제관리를 체계화하지 못해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며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법계에 따른 의제 시행이 필요하게 되어 가사를 통일하게 되었다"고 가사통일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해 10월13일 범어사에서 3급 중덕 · 정덕품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처음으로 삼보륜이 들어간 가사를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미(니)계, 구족계 수계 산림후에도 통일가사를 지급한다.

조용수 기자

제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한재숙 총장 · 이인자 · 고두심 · 여운계씨 등

한재숙 총장(위덕대), 이인자 교수(경기대 디자인공학부), 탤런트 고두심 · 여운계, 방송작가 노희경씨 등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선정하는 '제2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됐다.

'여성불자 108인'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을 발굴,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제정한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개발원은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 최근 2년간의 언론자료와 인터넷 검색, 인명록 검색, 주요 사찰과 신행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위원들이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108인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 김인숙 여성개발원장,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김용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장 등 6명 참여했다.

'여성불자 108인'은 교육, 포교신행, 자원봉사,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운동, 정치 · 경제 · 행정 등 크게 12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여성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해온 여성들로 선정됐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선정된 108인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수락 여부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양한 사람을 제외한 100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108인 선정 사업을 통해 여성불자 전문가 그룹의 상호 협조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108인은 오는 3월경 첫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인증서를 받으며, 이후 여성불자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와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은 108인 명단

(교육)김남선 임완숙 한재숙 김외숙 박혜인 조희금 김영선 김 진 김주현 이명순 이정호 손재현 이선옥 이인자 임지형 최성은 김복순 김영미 김애주 이규미 이혜은 정영희 조은수 황옥자 백추자 김선정 권영경 (단체)김자경 임선학 정안숙 곽명희 권경희 권대자 왕선자 이숙자 홍경희 홍말연 (문화예술)강형진 김경녀 김영임 백현순 신동춘 심재영 이나경 이명미 정승희 진우기 한숙희 이은경 (방송 · 언론)유혜선 이현정 최현태 고두심 나문희 여운계 임부희 한혜숙 노희경 이윤수 김주효 의료보건 오현숙 이영숙 홍재숙 황보선 복지 김수현 김영숙 이병순 이혜숙 (사회운동)김용숙 오선주 이연주 (언론 · 출판)임희경 최정희 황영채 (자원봉사)김상문 김상인 김영자 박명자 이문희 (정치 · 경제 · 행정)고순자 김영주 서분례 신 명 신현옥 심계진 윤원호 (포교 · 신행)김민희 박명혜 양혜순 유남영 윤미혜 이 란 이령자 이민자 이영채 이혜산 조길순 조정희 천양자 최혜경

여수령 기자



성지순례 다녀오겠습니다

불교 · 가톨릭 · 원불교 등 서로 다른 종교 여성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三笑會) 임원진이 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삼소회 소속 회원 16명이 2월 5일부터 23일까지 계획된 성지순례에 앞서 인사차 들린 것.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서로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든 일은 세계적으로도 종교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왼쪽부터 김지정 교무, 오인숙 수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본각 스님, 진명 스님.

글 · 사진=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내달 철거될 충절사 새로 짓는다

법화 스님 · (주)청호패키지 "법당건립 돕겠다"

군법당 - 사찰 - 기업 연계 캠페인 첫 결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지가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 사찰, 군부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군법당 건립 서원을 세웠다. 군법당-사찰-기업 연계 캠페인의 첫 결실이다.

여주 행운정사 주지 법화(조동종 규정부장) 스님은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충절사가 군 병영개선 현대화 사업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법당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본지에 전해왔다. 호국 충절사는 부대 내무반을 개조해 만든 법당으로 올 3월 헐릴 예정.

법화 스님은 법당이 없어지기 이전까지 매월 한차례씩 장병 위문을 하고 법당 건립을 위해 설계 등의 작업을 선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화 스님은 그동안 손수 사찰을 건립해 왔고 심지어 군 교회 건설 경험까지 갖고 있는 등 군부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5일 호국 충절사 수계법회에 참석해 법당 건립 발원을 세웠다는 법화 스님은 "재정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몸과 마음을 다해 법당 건립 불사에 앞장서고 싶다"며 "조립식이나마 법당이 건립되어 장병들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랑방같은 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용기를 제작하는 청호패키지(사장 강정기)도 호국 충절사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금일봉으로 불사 후원금을 보시키로 했다. 강정기 사장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포교사로 현재 고양 벽제병원과 지난해 12월부터 한달에 두차례 호국 충절사 법회를 전담하고 있다. 향후 불교대학원 동기 스님 및 포교사를 중심으로 법당 건립 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며 화주 섭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법화 스님



강정기 사장



서창욱 대대장



이기승 주임원사

특히 강 사장의 처남 등 가족들은 호국 충절사 법회 위문을 가기 위해 떡, 음료수 등을 손수 준비하며 군포교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강정기 사장은 "조그마한 가족기업이어서 큰 돈을 희사할 수는 없지만 성심성의껏 보시할 계획"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돌격대대 군법당 건립에 동참해 군장병들이 하루빨리 법회를 볼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진부대 서창욱 돌격대대장도 기업체와 사찰의 군법당 건립 노력이 가시화 된다면 군 내부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대대장은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법당 건립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군 종교시설들이 외부의 후원금으로 상당수 지어진 만큼 후원을 한다면 내부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돌격대대 이기승 주임원사도 "내무반을 개조한 막사지만 30년간 부처님의 법을 전한 곳이 바로 충절사"라며 "70여명의 군 불자들의 보금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되어 부처님 법을 배우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불자들의 후원을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우승가대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정 \ 내용	강의내용	강의과목	입학자격
승가학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림.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불전의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어록,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과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 불자
범패학과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을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무, 착복무,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예술학과	사찰전래의 49재, 예수재, 영산재및 각종, 행사시 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제작), 지화(전통꽃), 재설비, 장엄서예(범서),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 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 해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사 택일 기초사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생 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림	스님 및 일반불자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3) 모집일자 : 2006년 2월 25일까지.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이내, 선착순접수함)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8) 장학생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9) 편입생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13) 본교는 보우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응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우승가대학학장

여성불자들 경제적 학대 호소

'행복한 가정상담소' 2005년 상담결과

피해유형, 경제-정서-신체적 학대順
후속조치 미흡…실질적 지원 따라야

팍팍한 경제 사정 속에서도 알찬 자녀교육과 가정살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불자들. 하지만 지난 한 해 여성불자들은 가정 내 경제적 · 정서적 학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가 발표한 '2005년 상담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 한 해 615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 중 72%에 달하는 444명이 가정폭력피해를 상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자 중 타종교인이라고 밝힌 150명을 제외한 465명은 불교신자이거나 친불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연령은 40~50대가 36%(22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0대(90명)-20대(29명)가 그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369명(83%)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가해유행은 경제적 학대(돈을 벌거나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함)나 정서적 학대(말이나 행동으로 정서 · 심리적 상해를 입히거나 집기를 던지는 등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각각 141명(31%)과 114명(25%)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 성적 학대는 각각 90여명(20%)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통계에서는 신체적 폭력(31%)-정서적 학대(29%)-경제적 학대(24%) 순이었던데 반해 최근 들어 경제적 · 정서적 학대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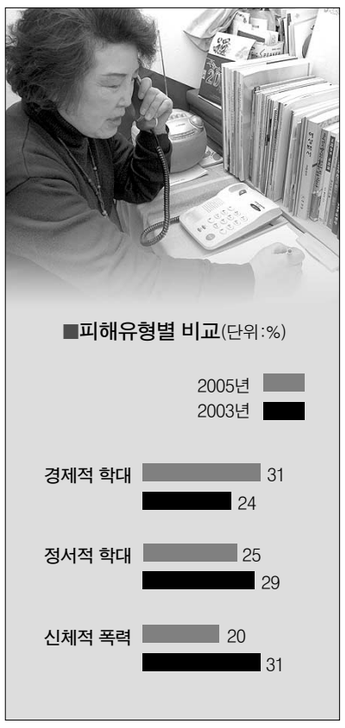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상담에 뒤따르는 후속조치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복한가정상담소의 상담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상담을 통한 심리 · 정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사나 법적 지원 · 의료지원 · 시설입소 연계 등은 40여건에 불과했다.

이는 여느 종단이나 복지관 시설 등과의 연계 없이 상담만 진행하고 있는 상담소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실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묘주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직업교육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는 단기 입소시설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본 상담소에서 주선해 줄 수 있는 불교계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상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 외에 무료 법률상담을 주선하거나 소송 지원, 시설입소 연계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영자 교수(방송통신대)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가정상담소의 경우 사회운동기관인 YMCA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입소시설 등과 연계해주고 있다"며 "여성불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피해유형별 비교(단위:%)

'직지의 고장' 청주서 직지강좌

청주불교문화대학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직지심경>의 핵심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법주사 승가대학장 철운 스님을 강사로 올 4월부터 청주불교문화대학에서 개최하는 '직지강좌(매주 월 저녁 7시)'가 그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지'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준말로 고려 말 고승 백운화상이 간행한 선어록이다. <직지심경>의 내용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깨달음 경지와 선문답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직지심경>의 가르침과 내용을 불교계에서 직접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직지심경>의 상 · 하권이 교재로 사용되며 원문을 대조하면서 그 행간의 내용을 파악해 본다. 이밖에도 청주불교문화원에서는 기초교리, 경전연구, 한지공예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043)256-6254 혜철 대전 충북지사장

황우석 살리기 운동본부 결성

본부장에 고준환 교수…종교계등 각계 인사 참여

황우석 박사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각계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가 참여하는 황우석 교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다.

국민운동본부는 1월 26일 인터넷 카페 겸 홈페이지(www.livehwang.com)을 개설한데 이어 1월 28일 고준환 경기대 교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공동대표단,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 임원단을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단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 등 불교계 중진 인사를 비롯해 전병관 경희대 교수(가톨릭), 정정박 영주교회 목사, 이재룡 대종교 총전교 봉선 등 종교계 인사와 강경구 의사, 김관태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배금자 변호사, 이외수 소설가, 박종수 前 민족정신 발행인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됐다.

또 고문단은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한라산 영실 존자암 중창주 법정 스님, 김선적 통일광복민족회의 상임의장으로 짜여졌으며, 김용표 동국대 교수와 윤소년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호순 서울시의회 의원, 김범수 인하대 교수, 용해사 주지 무진 스님, 유임현 국학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궁인창 찬덕연등이사는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임원단을 포함해 300여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민운동본부는 미리 발표한 창립 취지문을 통해 "민족과 인류의 희망인 황우석 교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민족통일 복지국가를 이루고, 우리 문화가 세계 중심문화가 되는 하나의 평화세계를 향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월정사 노인요양시설 건립

연건평 369평 규모…3월 착공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연건평 369평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월정사측은 자부담 4억9000만원과 국 · 도 · 군비 11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6억8000만원을 투입, 월정사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 3월 착공해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의료물리 치료실, 의무실, 목욕실, 자원봉사실, 휴게실 등이 들어서며 실비로 운영된다. 50명을 정원으로 올해 말부터 노인들의 입소를 받을 계획이다.

월정사측은 "운영은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해 담당하고 입소자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내면 된다"며 "노인요양시설이 오대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 고찰 인근에 있어 심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지율 스님 원광대 한방병원서 퇴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지율 스님이 2월 2일 오후7시께 퇴원했다.

병원을 나선 지율 스님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제공한 휠체어에 의지해 광주 모 사찰로 거처를 옮겼다.

병원측은 "스님의 건강은 가벼운 음식과 재활운동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퇴원을 결정했다.

지율 스님은 미음과 물을 섭취하면서 몸무게가 4kg이 느는 등 퇴원에 무리는 없으나 혼자서 앉거나 걷지 못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그러나 지율 스님은 자신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과 수많은 생명을 보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 단식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한편 광주지역 종교 · 시민들로 구성된 '지율 스님과 함께하는 수요기도모임'은 2월 1일 광주 선덕사에서 모임을 갖고 "지율 스님의 카페 초록공명(http://cafe.naver.com/chorokgm)을 통해 '지율 스님의 생명 살리기'에 더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이준엽 기자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병원불자연합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이원철)는 2월 1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2006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이원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올해 병불련의 풍성한 활동과 병원불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원철 회장은 "부처님의 가피와 병원직원불자들의 노력으로 아픈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며 "올해는 그 동안 계속해왔던 해외, 농촌봉사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누는' 병불련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신년 찬불가 합창, 108배 참회, 전임 회장단 격려사 등으로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국제포교사 자격증 갱신 신청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국제포교사증 교부 및 갱신 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을 첨부해 국제포교사회(02-722-2206)나 포교원(02-2011-1895)으로 접수하면 된다. 통보는 올 3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g)를 통해 공고된다.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복지타운 3월 8일 착공

조계종 스리랑카복지타운(이하 조계종복지타운) 착공식이 3월 8일 열린다.

조계종복지타운 건립주체인 한 · 스문화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2월 3일 2차 이사회를 열고 건립규모와 착공일자 등을 확정했다.

조계종복지타운은 약 9억원을 들여 고아원, 유치원, 종합관리사무소 등 건물 10동 6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수용인원은 당초계획보다 40명이 줄어든 60명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임위원장,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집행위원으로 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관 스님은 "이미 모금된 성금을 모두 사용한 뒤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영동 영국사 대웅전 새 단장

해체복원 마쳐 6일 낙성법회

충북 영동 영국사(주지 청원) 대웅전(충북유형문화재 제61호)이 새롭게 단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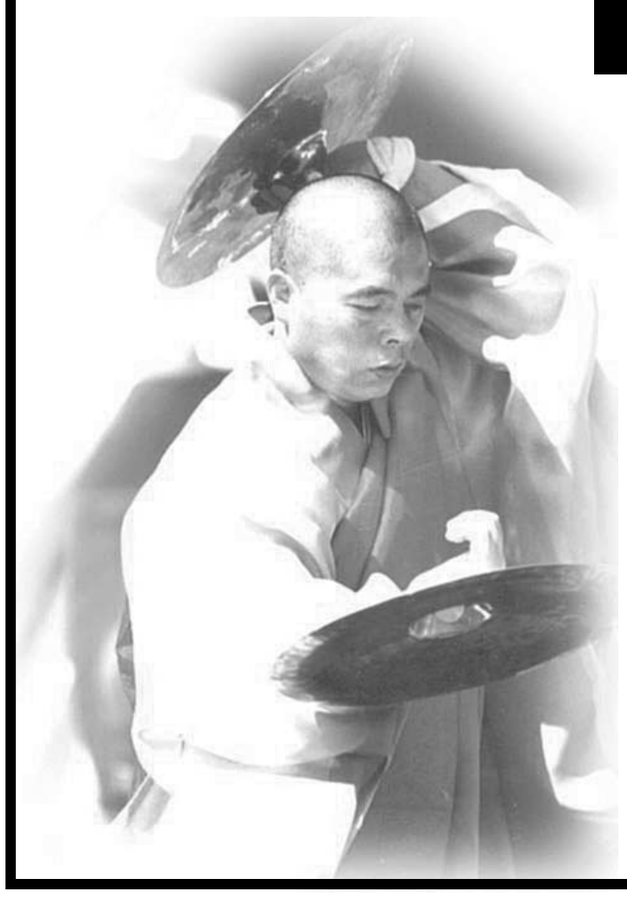
2005년 4월 산불에 의한 소실 위기를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국사 대웅전은 2004년 11월부터 해체복원 공사에 들어가 2월 6일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에는 영국사 회주 월서 스님과 지역 스님 및 기관장, 불자 등이 참석했다.

정면3칸 측면3칸의 대웅전 해체복원 공사는 부식된 기둥과 기와 등을 교체하고 나무지 자재는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낙성식에서 주지 청원 스님은 "대웅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불자들이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진할 수 있게 됐다"며 "불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올 해 1억 1천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국사 주변 문화재인 망탑봉 삼층석탑과 석종형 부도, 원구형 부도 등에 대해서도 해체 보수할 계획이다. 사찰 주변에 대한 발굴 작업과 유구 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산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수륙재보유자

■ 개강일시 : 2006년 3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대학은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음악으로 '둘이 아닌 도리' 교감

독일인 불자 음악가 3명, 한마음선원 등서 연주회 열어



2월 1일 서울 초의차명상원에서 차훈명상을 체험하고 있는 독일 불자음악가들. 왼쪽부터 아니타 노벨, 한스욕 에플레, 요한나 에레미아, 사비네 스타징어.

1월 30~31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독일에서 1주일 일정으로 내한한 독일인 불자 음악가들이 법당에서 불심을 담은 즉흥곡을 연주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 신도인 이들은 2월 1일 초의차명상원(원장 지장)을 찾아 지장 스님에게 차훈명상을 배우고 차훈명상을 경험한 느낌을 즉흥곡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대행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한지 10여년이 됐다는 피아니스트 아니타 노벨은 독일 본에서 음악교사를 하고 있다. 올해 65세인 그녀는 대행 스님 팔순을 맞아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연주한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긴다. "지금까지 어두운 내면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주하겠다는 결심을 하자 내면에 빛이 생긴 기분"이었다는 아니타는 "대행 스님을 뵐 때마다 업식이 벗겨지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눈물지었다.

비올라 연주자인 요한나 에레미아는 독일 라이프치히 오케스트라 단원이다. 내면의 감각을 피라미드에 비유한 요한나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내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일생일대 이런 연주는 처음"이라는 요한나는 "연주자 세 명의 호흡이 저절로 하나가 되고 법당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느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내면으로 돌아오는 공심의 길,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녀의 감상이다.

교회음악을 하던 플루트 연주자 사비네 스타징어는 불교에 귀의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드문 피리형 목관 플루트를 연주하는 사비네는 에센에서 음악교사를 하고 있다. 연주할 때마다 그 내면의 느낌이 다르다는 사비네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도반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마음으로 밀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법당의 장엄한 에너지와는 또 다른 초의차명상원만의 따뜻한 에너지가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이 방한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장인 한스욕 에플레(베를린의대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 치유에 힘쓰는 입장에 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세속과 일상에서 입은 상처들이 모조리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며 "법당에서 연주하는 동안 내면의 불성이 다이나믹하게 에너지로 돌아 내면에 귀의하기 때문에 힘이 커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월 2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의 촛불재에 참가한 후 4일 귀국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차훈명상 체험 즉흥연주도

군 · 청소년들에 불서 보급

부산불교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운동 펼쳐

2월 1일로 개국 11주년을 맞은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은 개국 11주년을 기념해 불서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2월 1일 군수기지사령부 군법당 금련사(손병철 법사)에서 도서기증기념법회를 갖고 불서 1천여권을 전달했다. 이어 부산불교방송은 육군 53사단, 해군 3함대를 비롯 해동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동해중학교, 학산여자중학교 등 6곳의 학교에 불서 총 6천여권을 전달하게 된다.

부산불교방송 주최,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시교육청, 부산불교실업인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로 불자들에게 증정받은 책과 영광도서 협찬으로 마련된 불서를 군인과 청소년들에게 보급하게 됐다.

부산불교방송 관계자는 "앞으로 불교서적 나누기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방송은 이날 도서기증법회 현장을 특집 생방송했다.

천미희 기자



이진록 불자 황우석 지원금 기탁

대구의 독실한 불자가 '황우석 사태의 진실규명과 연구 재개를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가칭)'에 전달해 달라며 천 만원을 1월 26일 대구불교방송에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사는 이진록(47 · 사진) 불자. 이 불자는 용접 일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인도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 3년간 푼푼이 모은 금액 천만 원을 모두 내 놓았다.

이진록 불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성과를 거둔다면 지금의 천만원이 몇 배의 가치를 낳게 될 것"이라며, "성지순례보다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지선 기자

부산 반야회 자비의 쌀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개인택시 반야회(회장 손경수)는 2월 2일 오후 3시 정수사(주지 원광)에서 16개구에서 추천된 독거노인 150세대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반야회 회원 차량내에 '껌통'을 비치, 복지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것. 전달식에서 손경수 회장은 "앞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봉사와 자비행에 앞장서는 반야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보광선원 선지식 초청법회

부산 보광선원(주지 황백)은 2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고승초청 선지식 친견대법회를 봉행한다. 2월 9일 첫 날은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이 입제법문을 한다. 이어 2월 16일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2월 23일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3월 5일 회향법회 쌍계사조실 고산 스님이 법문한다. (051)973-7158 천미희 기자

염불공양모임 장학금 전달

부산불교TV 염불공양모임 장학회(회장 하성심행)는 2월 2일 염불공양모임 사무실에서 제6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태응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학생 3명, 고등학생 8명에게 총 5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울산불교교육대학 졸업식

울산불교 교육대학 (학장 성본)은 1월 24일 제 25기 교리반과 제3기 꽃꽂이반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이사장 눌암 스님(법륜사 주지)과 학장 성본 스님(해남사 주지) 부학장 보화 스님(옥천암 주지)등 스님과 졸업생 150 여명이 참석 했다.

1993년 2월에 개설된 울산불교 교육대학은 그간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6년에도 제26기 불교교리반, 경전반, 다도반, 꽃꽂이반 신입을 모집하고 있다 (052) 266-3318 서병수 울산지사장

대구 법왕사 백고좌법회 봉행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제16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2월 13~5월 23일 100일간 100분의 대덕스님들을 초청해 여는 이번 법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부모은중경과 부처님 팔상성도법문, 금강경, 아미타경, 영가법문으로 진행된다. (053)766-3748 배지선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해남 미황사 진법군고(陣法軍鼓)



진법군고의 기원인 해남 미황사. 사진은 괘불제 모습.

정월대보름 전날 열려 … 가락 · 기법 독특
스님 주민 모여 당제 지내고 풍년 기원

정월 대보름 전날, 해남 송지면 땅끝마을 사람들은 스님들과 풍물을 친다. 여느 풍물과는 가락과 기법이 독특한 진법군고(陣法軍鼓)의 하나인 산정군고이다.

진법군고는 명칭그대로 싸움을 하기전에 진을 짜고 사기를 높이는데 쓰는 춤과 음악이다. 따라서 가락이 흩리지 않고 똑똑 떨어지는 엄한 군령으로 진행되어 흐름이 장엄하다. 기법이 까다롭고 익히기가 힘들어 해남의 송지, 황산, 계곡면 등 몇몇 마을에만 전해온다.

군고의 시원은 임진란 당시 승군이다. 강강술래와 같이 승군의 사기를 높였을뿐 아니라 승군이 나가고 물러서는 전법의 하나이다. 1607년, 서산대사의 의발과 함께 '진법군고 규식본'이 해남 대흥사로 전해졌다. 아쉽게 원본은 사라졌으나 놀이꾼들이 이 책을 필사하면서 해남지역에 유포됐다.

해남 송지의 산정군고는 미황사 군고를 계승하고 있다.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에 따르면 "지금부터 130여년전, 미황사 혼허(渾虛 서산대사 10대손) 스님이 쇠락한 절의 불사를 위해 진법군고단을 조성하고 화주길에 나선다.

그러나 1897년 2월 완도 청산도(영화 '서편제' 배경)를 향하던중 돌풍을 만난다. 유일하게 설장구를 맡은 젊은 스님이 삼정리 해변에서 구조되어 마을에 군고가 전수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미황사(3월17일)와 산정마을(2월 4일)은 매년 바다에 잠긴 군고꾼들을 위해 합동제사를 지내고 있다.

진법군고는 반드시 놀이 시작전에 당제를 지내고 길굿에 들어간다. 산정마을에는 100여년째 정월 대보름 전날 당제를 지내고 있다. 17년전부터 미황사 스님들도 산정마을 당제에 동참하고 있다. 당제를 지내고 진법군고를 치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있다.

이처럼 진법군고는 스님들의 군고로 시작해 화주를 하는 승걸궁으로 맥을 이어오다 현재는 민가에 전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땅끝마을 해맞이 축제때 울리는 풍물이 바로 진법군고이다. (061)535-3521, www.mihwangsa.com

이준엽 기자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고 박송암스님 등 여러분의 보유자를 지정한 바 있는 영산재가 지난해 김구해스님이 보유자로 새로 지정되어 영산재를 보존하는 정통 도량입니다. 불교음악, 불교무용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실기강의

학 년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월,수	오후 3시-5시	마일운 (전수교육조교)	50명
2학년	각배과	목	오후 3시-5시	이기봉 (전수교육조교)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김구해 (보유자)	50명
불교무용 (작 법)	바라/나비춤/법고춤	화	오후 3시-5시	한해사 (강 사)	50명
불교의식 음악/무용 (작 법)	불교의식 이론(1학기)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2학기)	월,화	오후 1시-3시	심만춘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1학기개설 김법현 (동국대 국악과 교수) 2학기개설	약간명

2. 응시자격

승려, 일반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1)입학원서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합격후서류 (1)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2)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6년 2월 1일 ~ 3월 5일까지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nfus0821@naver.com

6.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7. 입학 및 개강일

2006년 3월 6일 월요일 (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9. 문 의 처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FAX 02)393-9450

한국불교학회 법인화 추진

지난해 3월 착수 … 자금문제로 우여곡절
기금 5000만원 조성해 문광부에 신청
불자 후원 호소 … 이달중 결론 날듯



"삼보님께 예배드리오며, 한국불교학회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 사진) 홈페이지(www.hanbulhak.or.kr)에 지난 12월 15일자로 이와 같은 '권선문'이 올라왔다. 한국불교학회 사단법인화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후원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1973년 창립된 한국불교학회는 회원 수 5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불교학회다.

◇순탄치 않은 법인화 과정

권선문에 따르면 한국불교학회의 보유 기금은 3500만원. 설립에 필요한 기금 5000만원에 1500만원이 부족하다. 3500만원은 한국불교학회가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2003년부터 모아온 '거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월 다소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 임원이 빚을 내 임시로 자금을 융통한 것. 덕분에 한국불교학회는 5000만원을 채워 문화관광부에 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에 법인 설립을 위해 서류를 접수한 것이 지난해 3월이니 거의 1년여를 끌어온 셈이다.

처음에 서류를 접수한 곳은 강남교육청이었다. 하지만 몇 달 후 "불교단체이므로 교육부가 아닌 문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서류가 반려돼 왔다.

문광부 또한 설립기금이 5억은 돼야 한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문광부에 학술단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야 설립기금 5000만원이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낼 수 있었다. 법인화 여부는 늦어도 2월 중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양한 사업 전개 가능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불교학회가 법인화 의지를 꺾지 않은 이유는, 법인 형태가 여러모로 학회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학회의 지위다. 학회가 법적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 발주사업에 입찰하려면 '법인'이라는 자격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국가사업 수주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확보하는 셈이기도 하다.

법인이 되면 후원금 모금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은 후원을 한 후원자라 해도 학회 측에서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인은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또는 개인 후원금을 유치하기 쉬워지리라는 것이 한국불교학회 측의 기대다.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대한 투명한 관리도 가능해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 법인화는 한국불교학회 조직 확대와 다양한 사업 전개도 가능케 할 전망이다. 법인은 산하에 단체를 둘 수 있는데, 전국에 지회를 둔다거나 교양불교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불교대중화에 큰 보탬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불교계에 잔잔한 반향

이런 이유로 한국불교학회의 법인화 추진은 불교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

어떤 불자는 익명을 전제로 10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혜원 스님은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림사 방 하나를 사무실로 제공키로 했고,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원광대는 각각 성본 스님과 양은용 교수의 연구실을 지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회 사무실과 지회 사무실은 법인 설립의 기본 요건이다.

한국불교학회장 이평래 충남대 교수는 "불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학회 법인화는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노력인 만큼 불자들이 관심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02)2260-3140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태고종 정체성 확립하려면 … "

하춘생씨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서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하춘생(사진) 교학처장이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을 통해 태고종의 정체성 확립과 종단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정체성 연구를 '태고종의 창립과 그 정체성 연구' 제목의 논문에서 하처장은 태고종의 사상적 정체성인 보살불교사상이 태고보우의 원융불교 사상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태고종이 보살승단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 처장은 "태고종은 광복 이후 분규과정에서 자리일변도(自利一邊倒)의 비구승 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시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주장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종단의 기본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종단의 목표설정에 대해 하 처장은 "태고종조 보우의 선교불이(禪敎不二) 이사무애(理事無碍)의 원융종풍에서 연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태고종이 이러한 정체성은 정작 태고종도들의 의식구조로서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 하씨의 지적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하 처장은 △태고선풍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상설연구기관 설치 △종조어록에 전거한 수행강령 수립 △종조와 관련한 의식의례 전형 제시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정착 △종도재교육과 이를 위한 상설연구기관 운용 △종단 기능인력의 자기정체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하 처장은 "종단의 정체성은 종조를 명분상 모시는 것만으로 확립되지 않는다"며 "종지를 현실 속에 여법하게 구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때 정통종단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살예방 전문가 과정
한림대 사이버교육 개설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소장 오진탁)와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은 '자살예방 전문가 과정'을 사이버 교육과정을 오는 3월 20일 개강한다.

1년 과정(2학기)으로 개설되는 자살예방 전문가 과정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회병리현상으로서 자살' '죽음, 끝이 아니다' '자살사례 유형별 분석'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수업은 각 학기 1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기말에는 출석수업(1일)이 병행된다.

생사학연구소 측은 "현직교사, 종교인, 군관계자, 의료인, 심리상담가 등을 대상으로 죽음과 자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자살예방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좌 개설의 의의를 밝혔다.

수강 인원은 선착순 60명이며, 수업료는 1학기 15만원, 1년 28만원이다. (033)248-3091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00일

지난해 10월 28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이 2월 4일로 개관 100일을 맞았다.

박물관은 1월 31일 현재 총 176만명이 다녀갔으며, 100일째 되는 4일에는 18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한편 박물관은 개관 100일을 기념해 새로 선보이는 전시관워크시트(활동지) 3종(삼국의 꾸미개, 도자기, 불교조각 등)을 박물관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9>

소리

서암 스님은 현대에 보기 드물게, 자신의 선 수행을 모범적으로 열반 시까지 보여주셨던 분이다. 자신이 조계종 8대 종정이셨음에도 스스로 세속적인 문중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을 만큼, 수행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작년 서암 스님의 제자들은 <소리없는 소리>'라는 책을 펴냈다. 서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의 가르침의 자취를 실감 나게 정리한 매우 품격이 높은 책이다.

그 책의 제목을 왜 '소리 없는 소리'라고 했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반야심경>에 있는 말, '무색성향미촉법', 즉 우리가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대상이나, 감각기관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말에서 따 온 것이 아닐까. 서암 스님의 가르침이 의미를 가지더라도, 스님의 목소리 자체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체와 용에 대한 불교의 양면성을 만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다.

우리는 외부세계의 끊임없는 진동을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듣고 있을 뿐

'소리'를 통해서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와 만나기도 하고, 아파트 위층에서 이웃이 만드는 소음과 만나기도 한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매질이 딱딱할 수록 소리가 손실이 없이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귀를 책상에 대고, 책상을 두드릴 때 들리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 책상이라는 매질이 공기보다는 더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물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소리를 녹음으로 듣는 것과 스스로 인식하는 소리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신의 소리를 두개골을 통해서 듣기 때문이다. 두개골이라는 뼈의 소리 전달 능력이 공기보다도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공기는 사실 공기분자가 수 없이 돌아다니는 공간이다. 19세기 말을 살았던 볼츠만은 이 공기분자의 운동이 압력, 온도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세운 첫 과학자다. 당시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이해했거나,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가 향을 피울 때, 연기는 아름다운 자취를 만들면서 공기를 퍼져나간다. 이 움직임은 향의 큰 입자를 공기 중의 작은 입자가 무수히 때리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이다. 작은 입자가 향 입자를 때리는 행동은 매우 임의적이다. 이러한 행동을 예측한 사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이다. 사실 향이 공기 중을 운동한다고 해도 좋고, 꽉 찬 공기분자 중을 향 연기가 비집고 움직인다고 해도 좋다. 마치 목욕탕 물속에 물방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공기에도 이와 같이 오묘한 과학이 있다. 이러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진동을 소리라는 이름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한다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에 깊은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해지는 우주 만상의 진동에 반응하는 '나'라는 진화의 결과를 느낄 수도 있고, 파도의 소리와 반응하는 자신의 인식에서 '불성'을 발견한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수행을 편린이나마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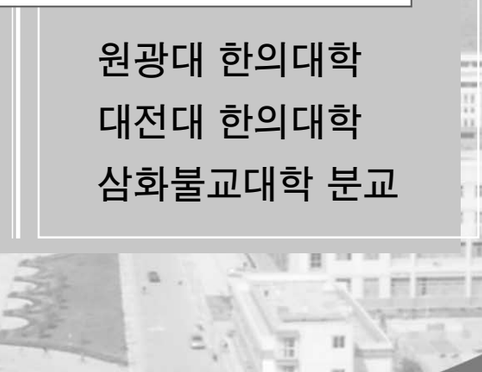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2월 17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한국 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49년간의 법문 나눠보면
인천 · 소승교 등 다섯 가르침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법을 알아듣게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준 것을 교(敎)라고 한다. 이것들이 모여 팔만대장경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을 <선가귀감> 5장에서 말한다.

一代所說者 爲敎門 故曰 禪是佛心 敎是佛語

세존이 한평생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준 것이 모여 팔만대장경이 된다. 그러므로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

팔만대장경은 중생 근기 맞춰

여기서 '한평생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가르침을 준 것'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말씀하신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말한다.

인천교(人天敎)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면서 좋은 일만 하라고 일러주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 다음 세상에 복이 많은 인간이나 하늘에 사는 하느님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인 가르침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아도 좋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쓰신 자비로운 방편이다.

소승교(小乘敎)란 무엇인가? 복을 지어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도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중생계에 윤회해야 하는 것이 중생의 운명이니, 실체가 없는 중생의 허망한 삶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중생 삶에 대한 집착을 떠나 온갖 번뇌를 끊는 공(空) 체험으로써 부처님 세상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뜻을 잘못 알고 오로지 공(空)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소승교라고 한다. 오로지 공(空)만 주장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다 보면 허무주의나 무기력한 삶에 빠지기가 쉽다.

'소승(小乘)'이란 작은 수레란 뜻인데 보통 공(空)에만 집착하여 폭이 좁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여기에 해당되므로 이승(二乘)이라고도 한다.

대승교(大乘敎)란 무엇인가? '대승(大乘)'은 큰 수레란 뜻이다. 많은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들의 큰 틀을 말한다. 소승처럼 공에만 집착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중불교 운동이다.

부처님이 공(空)을 말씀하시는 것은 온갖 번뇌를 끊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세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인데, 소승들은 그 뜻을 모르고 공(空)에만 집착하여 나쁜 경계에 빠진 채 주저앉아 있으므로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게 된 개혁불교이다.

돈교(頓敎)란 무엇인가? 소승이다 대승이다 말들을 하지만 사실 '한 생각 돌이키면 서있는 그 자리가 모두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가르침이다. 여기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경론(經論)이 없지만 이와 같이 설법하는 내용들을 모두 돈교라고 한다.

원교(圓敎)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안팎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중도실상(中道實相)에 있으므로 이것을 올바르게 드러낸 가르침이다.

모든 중생이 거울 속의 모습이나 물 속의 달과 같아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끝내 어떤 실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삼제(三諦)의 도리가 완연히 구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과 <법화경>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화엄경>에서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들이 다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가섭과 아난이 선과 교를 갈래짓다

이 많은 가르침들은 모두 부처님을 따라 다니면서 모든 법문을 듣고 외워놓았던 총명한 제자 아난에 의하여 이 세상에 전해진다. 가섭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 선종(禪宗)의 초조가 되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난에 의해 정리된다. 선(禪)과 교(敎)의 근원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선과 교로 갈라지게 된 것은 가섭과 아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말 없음으로써 말이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선이요, 말로써 말이 없는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교이다. 마음은 선법(禪法)이요 말은 교법(敎法)이다. 법은 한 맛이더라도 양쪽의 견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니, 이것으로 선과 교의 두 갈래 길을 잘 분별해야 할 일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不得放過 草裡橫身

일어나는 한 생각도 놓치지 마라
차가운 풀 속에 옆으로 누우리라.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스님 성에 '석(釋)' 씨가 많은 까닭?

성(姓)은 한 집안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성은 씨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구심점이었지요. 그런 성이 절 집안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석(釋)' 씨입니다. 왜 그런지는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대략 짐작은 할 겁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에서 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이 '석' 씨일까요? 아닙니다. 세속의 성씨는 '고오타마'이고, 이름은 '싯다르타'지요. 석가모니(釋迦牟尼)란 이름은 석가족의 출신의 성자(聖子, 모니)이란 뜻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뒤에 붙여진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석가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인도말로 '사캬(saka)'의 한자 표기지요. 모니도 '무니(muni)'의 한자표현입니다.

석자만 따서 출가자의 성씨로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 동진시대의 고승 석도안(釋道安: 314~385) 스님의 제안에 의해서지요. 이후 서서히 정착이 되면서, 오늘날에도 출가자의 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8강 <금강경> 3장 : 아라한과 보살

보살마하살에겐 자의식이 없다

지지부진, 더딘 강의가 이제 3장으로 들어섰다. 언해, 원문, 현대어역을 풀은 다음, 사설로 들어간다.

3장의 여러 번역들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일르시되, "諸 보살마하살이 반드시 이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 있는 一切 衆生 類, 卵生과 胎生과 濕生과 化生과, 有色과 無色과, 有相과 無相과, 非有相과 非無相을, 모두 無餘열반에 들게 하여, 滅度하노니, 이같이 無量無數無邊 중생을 滅度하되, 실로 중생이 滅道 得한 이 없으니. 어찌어뇨?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이 있으면 곧 보살 아니라."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일러 주었다. "여러 보살마하살은 반드시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그 모든 중생들, 알에서 나는 것, 자궁에서 나는 것, 젖은 곳에서 생긴 것, 변이로 생긴 것, 그리고 신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의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 등, 이 모든 생명을 '찌끼 남김 없는 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여 구제하겠다고…. 그러나 이처럼 헤일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해도, 기실은 어느 생명 하나도 구원한 적이 없다. 왜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생각, '자아'라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라한과 보살

보살이라는 이름은 이제 흔해졌다. 절간에서 공양을 담당하거나 다른 수고로 봉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절을 찾는 신도 아가씨 아줌마, 할머니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나 보살은 본래 '드문' 이름이었다. 그것은 본시 대승의 최고 인격형을 가리켰던 말이다.

소승과 대승을 가르는 수많은 지표가 있고, 분분한 논란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두 유파가 내세우는 이상적 인격의 모델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라한의 목표는 자기 구원이다. 붓다는 대승의 전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문을 나서서, 늙고 꼬부라지고, 병들어 신음하며, 오물을 덮어쓰고, 마침내 죽어 장작불에 사라지는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불멸을 얻기 위해 출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 동기는 개인적 사적인 것이었다. 그가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자신의 깨달음이 일반인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비웃음을 살까봐 처음에는 혼자 그 비밀을 안고 가려 했다. 그러나 또 전설에 의하면, 범천 사함파티의 "너무 비관하지 말라. 정신적 성숙에 무르익은 사람도 있으니 어찌 그들을 버리는가"라는 목소리에 용기를 내, 비로소 '법의 바퀴'를 굴리게 된 것이다. 붓다의 교단도 처음은 그렇게 '각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 그때 재가 신도들은 그런 공동체의 외곽 지원 집단이었다. 당시 승가는 그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수행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승은 이 사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대승은 대중부(大衆部)에서 발전했다. 그들은 교리의 해석에 있어서도 유연했고, 또 계율도 상황에 따라 적응적이었으며, 일반 신도들과의 유대도 강조하는 개혁적 '젊은이들'이었다. 그 반대편에는 교리와 계율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보수적 어르신들, 즉 장로(長老)들이 있었다.

대승의 발전에는 외부의 사정도 있었다. 엄격한 교단은 아쇼카 왕의 귀의 이후, 풍부한 지원을 받았고, 정착지에서 주거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그 후원이 끊기자, 교단은 재가신도들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부대중을 함께 엮는 대중의 불교, 즉 대승을 출범시켰다. 물론,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좀 불경스럽고 악의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전혀 없다는 것도 지나친 결백이다.

대승은 이와 더불어 교리체계를 새로 재편했다. 그 중심에 보살이 있다. 보살을 강조함으로써 이전의 소승적 인간형들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다. "어찌 너만 해탈하겠다고 나서느냐."

그들은 1)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붓다의 제자들은 성문(聲聞), 즉 "붓다의 목소리를 다만 듣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고, 2) 한편 '무소처럼' 홀로 깨달음을 즐길 뿐, 그 깨달음을 나누어주지는 않으려는 사람들을 연각(緣覺), 혹은 벽지불이라 하여 배척했다. 이들을 일러 이승(二乘), 즉 '두 개의 작은 수레에 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대승은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보살승(菩薩乘), 즉 '영웅들의 수레'라고 불렀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남과 더불어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진정 위대한 사람들로 불리기를 바랐다.

최고의 깨달음, 즉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이 역설적 마음가짐을 가질 때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붓다는 수보리에게,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영웅적 발원을 발보리심(發菩提心), 혹은 발심(發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종교적 회심에 해당한다.

내게 문제는 없다

단도직입, 붓다의 대답은 의외이다. 2장의 질문을 보고, 우리는 붓다가 "그래, 큰 발심을 했군. 위대한 영적 인간, 보살마하살이 되려면 말이야, 우선 마음속의 이런 습관은 이렇게 고치고, 이런 장애는 이렇게 제거하며, 구체적 수련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 등등 조언이 이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 기이한 어법이다.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 그는 다만 "다른 사람을 이끌고 구원하더라도 그런 자의식이나 자만심을 갖지 말라"고만 일러줄 뿐이다. 지금 붓다는 보살 '개인의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보살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 붓다는 보살이 상구보리(上求菩提)를 마친 다음, 이제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가르치려 한다. 보살은 모든 생명, 즉 중생을 연민하며, 그들을 더 이상의 문제꺼리나 심리적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은 지고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고자 애쓴다.

이것은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미리 언급하자면 나는 두 번째 해석에 기운다.

2) 돈교,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야부 경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혜능 돈교의 취지에 의하면 "구원은 이미 성취되어 있다." 무엇을 하려는 태도, 무엇을 의식 · 의도적으로 이루려는 유위(有爲)의 태도야말로, 목표에 가로놓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돈교는 이미 있는 자신을 믿고, 그 전체인 불성을 보듬고 존중하라고만 가르친다. "네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다!" 나아가서 말한다. "네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때, 단단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가슴 속에 똬리 틀고 있는 자만심과 허세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거나, "내가 너를 가르치고 도와준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공덕을 까먹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일반적으로 나, 혹은 자아의 심리적 방해가 엷을수록 관계는 더 만족스워진다. 이보다 더 분명한 진실은 없다. 그 '비움'의 극점에 보살이 있고 마하살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불교 1번지 '조계타운' 뜬다

조계사 인근 오피스텔 속속 건립
단체 · 출판사 등 입주… '반상회' 도

견지·수송·경운동 불교·문화 클러스터



최근 견지동 수송동 일대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전통과 문화를 중심으로 불교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앞의 건물이 '두산 위브', 그 뒤로 조계사가 보인다. 사진=고영배 기자

2006년 '견지동 불교 · 문화 클러스터(Cluster)'가 뜨고 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종로구 견지동 · 수송동 · 경운동 일대 신생 오피스텔과 대형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불교관련 문화 클러스터 형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지상 13층 규모의 최첨단 주상복합 건물 '두산 위브'.

2005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총 448실. 이 가운데 대략 10%가 불교관련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합 불교용품점으로 이름나 있는 '상운중심'도 최근 1층에 매장을 냈다.

이곳의 입주자들도 하루 종일 건물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마주치는 것을 전혀 어색해 하지 않는 눈치다. 현재 도서출판 민족사, 장경각, 설법연구원, 밀교신문사, 해인강원동문회, 불광여행사, 불교상조회 단체 연화회, 불교IT업체 마하넷 등 불교관련 단체들이 입주해있다.

"견지동 수송동 일대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전통과 문화를 중심으로 불교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앞의 건물이 '두산 위브', 그 뒤로 조계사가 보인다."

관계없이 비싼 임대료를 물어야 하지만, 개인소유인 오피스텔은 시쳇말로 임자를 잘 만나면 시세이하로도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주위에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를 비롯한 각종 불교단체들이 모여 있어 불교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습득'이 용이해요. 게다가 길 하나사이에 인사동 경복궁 등이 바로 연결돼 '문화적 환경'도 빼어납니다."

스님은 "조만간 두산위브에서 생활하는 불교인들과 '반상회(?)'를 소집해 이웃의 정의 나눠야겠다"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불교계 출판사 등 많은 업체들을 중개했다는 '위브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곽외경 실장은 "조계사가 가깝고, 주변보다 3~4배나 싼 관리비(평당 8000원 수준), 교통이 편리한 도심 한 가운데라는 점 때문에 불교계 인사들로부터 두산위브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정국로 대로변에 인접한 '우정 에쉐르' 도 규모는 작지만 불교관련 사무실로 꽉차있다.

2004년 4월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15층 건물에 모두 50여 실이 입주해 있다. 재단법인 만불회, 관음여행사, 아제여행사, 푸어재, 다도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불교관련 단체와 여행사, 보이차 업체들이 즐비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현관의 사무실 명패만 봐도 알겠지만, 2층 한의원과, 3층의 중국어 학원을 빼면 거의 모든 사무실이 불교와 관련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건물 외부의 '우정 에쉐르' 간판을 가리면 사실상 '불교회관'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경운동의 현대식 오피스텔 'SK허브'에도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 있던 천태종보사가 '금강불교신문사'라는 새 이름으로 입주했다. B동 3층 180평을 사들인 천태종은 이곳을 각종 미디어 사업과 남북교류 등 대사회사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정국로 사거리 코너의 '대성스카이렉스'가 아파트 54실과 오피스텔 61실 규모로 2008년 입주에 맞춰 한창 공사중이다.

조계종 기획국장 성묵 스님은 "견지동이 불교 1번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불교계 자본과 인재가 한데 어우러지는 진정한 불교 · 문화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포교전진기지와 대사회적 창구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여건에서 포교와 전법에 매진하는 단체들을 위해 불교계 각 종단이 좀 더 일찍 불교회관 건립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산 위브'에 입주해 있는 설법연구원의 원장 동출 스님과 직원들.

두산위브, 우정에쉐르 등에 100여 불교단체 입주
인근에 총무원 비롯 각종 단체 모여있어 정보 습득 최적
쾌적한 공간·편리한 교통·싼 관리비 등 매력으로 작용
"포교 단체들 위한 종단 차원의 불교회관 건립" 숙원

"어이쿠, 어서오세요!" 스님이 문을 열고 기자를 반겼다.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이다. 두산위브 1224호는 지난해 11월 인사동 부근의 수운회관에서 옮겨온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의 새 둥지다.

아담한 사무실의 한쪽 벽은 외부와 맞닿은 투명창으로 한겨울 햇살이 넘쳐났다. 직원은 모두 6명. 다들 컴퓨터 앞에서 준비 중인 단행본의 교정 작업에 여념이 없다. 스님은 "새 건물인데다 정남향으로 채광이 좋아 한겨울에도 난방걱정이 없다"며 활짝 웃었다.

동출 스님은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지인들과 필자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료'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시내 대형건물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비싼 임대료를 물어야 하지만, 개인소유인 오피스텔은 시쳇말로 임자를 잘 만나면 시세이하로도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주위에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를 비롯한 각종 불교단체들이 모여 있어 불교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습득'이 용이해요. 게다가 길 하나사이에 인사동 경복궁 등이 바로 연결돼 '문화적 환경'도 빼어납니다."

스님은 "조만간 두산위브에서 생활하는 불교인들과 '반상회(?)'를 소집해 이웃의 정의 나눠야겠다"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불교계 출판사 등 많은 업체들을 중개했다는 '위브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곽외경 실장은 "조계사가 가깝고, 주변보다 3~4배나 싼 관리비(평당 8000원 수준), 교통이 편리한 도심 한 가운데라는 점 때문에 불교계 인사들로부터 두산위브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정국로 대로변에 인접한 '우정 에쉐르' 도 규모는 작지만 불교관련 사무실로 꽉차있다.

2004년 4월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15층 건물에 모두 50여 실이 입주해 있다. 재단법인 만불회, 관음여행사, 아제여행사, 푸어재, 다도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불교관련 단체와 여행사, 보이차 업체들이 즐비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현관의 사무실 명패만 봐도 알겠지만, 2층 한의원과, 3층의 중국어 학원을 빼면 거의 모든 사무실이 불교와 관련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건물 외부의 '우정 에쉐르' 간판을 가리면 사실상 '불교회관'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경운동의 현대식 오피스텔 'SK허브'에도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 있던 천태종보사가 '금강불교신문사'라는 새 이름으로 입주했다. B동 3층 180평을 사들인 천태종은 이곳을 각종 미디어 사업과 남북교류 등 대사회사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정국로 사거리 코너의 '대성스카이렉스'가 아파트 54실과 오피스텔 61실 규모로 2008년 입주에 맞춰 한창 공사중이다.



불구점과 승복집들만 즐비하던 조계사 인근 우정국로에 고층 오피스텔이 솟아올랐다. 사진=박재완 기자



재단법인 만불회 등 50여 불교 관련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우정에쉐르.

클러스터(Cluster)란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기업, 기관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곳으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학교와 연구소,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각종 금융 지원을 맡는 벤처 캐피털 등이 한 곳에 모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일컫는 경제용어.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나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등의 클러스트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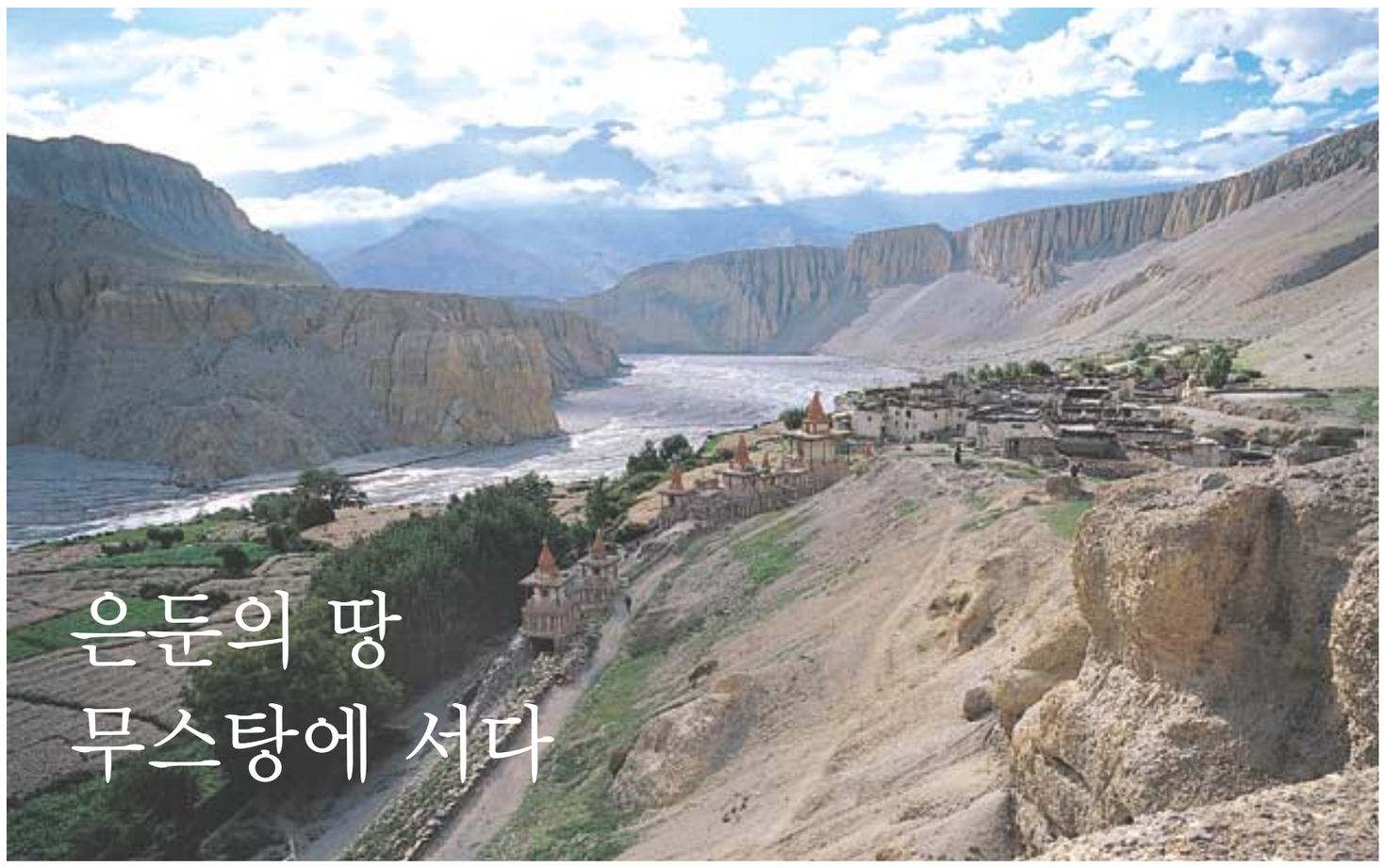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마지막 은둔의 땅 무스탕을 가다
백경훈 지음
호미|1만8000원

라마불교 원형 그대로 간직한 히말라야에 묻혀있는 불교 소왕국 원시의 빛깔 신비로운 풍광 생생히

히말라야 설산의 신비로움이 지배하는 네팔 깊숙이 숨겨진 은둔의 땅 '무스탕'. 네팔 중북부와 티베트 남쪽과 국경을 마주하는 무스탕은 14세기 나라의 기틀을 세워 600년의 역사를 이어오다 1760년 네팔을 통일한 고르카왕조에 자치권을 빼앗긴 옛 왕국이다. 하지만 왕의 존재는 이후에도 형식적으로 나마 세습되어 왔으며, 현재 22대 국왕인 지그미 비스타왕이 왕궁에서 지내며 그곳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티베트계인 무스탕은 라마불교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시인 백경훈씨와 사진작가 이경씨가 '금단의 땅' 무스탕을 20일동안 탐사한 뒤 <마지막 은둔의 땅, 무스탕을 가다>를 발간했다.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외국인의 방문이 금지됐던 무스탕은 지금도 2인 이상이 최소 10일 이상을 기본으로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1인당 하루 70달러씩 고액의 허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초목이 거의 없고 불모의 땅인 무스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발 2800미터에서 4500미터 사이를 넘나드는 '낙타등' 지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소모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인원인 2명이 한번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마부 2명, 요리사 2명, 포터 2명등 총 7명의 스태프가 필요하다.

이 책은 트래킹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무스탕의 자연과 협곡등을 통과하고, 여러차례의 아찔한 위기를 넘기는 아찔하고 경이로운 여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소개된 트래킹 코스는 이제까지 한국인들이 간적이 없는 '죽음의 코스'를 선택해 태고적 모습을 간직한 무스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히말라야 설산을 굽이굽이 돌 때마다 새로운 절경을 그려내는 끝도 없이 아득한 풍경, 원시의 빛깔로 더없이 신비롭게 빛나는 자연의 모습, 마을이 있는 곳마다 하늘에서 펄럭이는 신성한 깃발 룽다, 척박한 땅과 거센바람에 맞서 곰파(사찰)에 의지하며 사는 종교적이고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 등, 무스탕의 살아 숨쉬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진다.

33개 부락에 주민 6000여명으로 이루어진 무스탕인들은 돌과 흙으로 지은 정형화된 사각형의 집에서 티베트 불교문화와 복식을 지키며 산다.

또 한집안의 장남과 결혼한 여자가 그 집안의 형제들과도 부부의 연을 맺는 일처다부제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다.

무스탕 주민들은 척박한 땅에 보리, 메밀, 완두콩, 감자 같은 밭작물을 키우며 사는데 저수지가 없어서 경작지마다 계곡의 물을 수로로 끌어와 농사를 짓는다. 일부 유목민들은 양, 염소, 야크등을 키우고 그들에게서 우유, 고기, 연료(야크똥)를 얻는다. 이동수단은 말이나 노새가 이용된다.

백경훈 씨는 "무스탕에서 보낸 스무날의 낮과 밤은 크나큰 행복이고 기회였다"며 "헐벗은 땅에서 내 영혼이 마음껏 헐벗을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내일의 옷'을 걸쳐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담긴 수행시



색즉시공 공즉시색
최해영외
무한심성에너지계발원
7000원

대구 무한심성에너지계발원 회원들이 그동안 불교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시로 승화시킨 수행시집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발간했다. 창조와 소멸이 내면에 있음을 믿고 자연의 이치를 알아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는 수행시. 지난해 10월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한국관 이벤트홀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소개되기도 했다.

이 책에는 무한심성에너지계발원들이 지은 '시공간의 초월' '공한 눈' '기도' '남산의 머리없는 부처님' '에누리 없는 공' '마음중심' '천지가 길이다' '죽어야 사는세상' 등 110여편이 실려있다.

또 부록으로 나온 <FM center>에는 수행시에 대한 설명, 수행시 짓기의 원리, 수행시 짓기의 과정, 수행시 짓기의 효과등과 수행시 5편이 한글과 영문으로 소개돼 있다.

네티즌 강추

이 세상이 사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



늦어도 괜찮아 막내 황조롱이야 우리교육, 이태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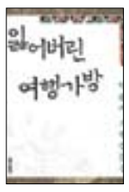
이 그림책은 아파트로 숲을 이룬 어느 도심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집 툇마루 창가에 둥지를 튼 황조롱이 이야기를 다룬다.

풀이나 나무라고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돈 주고 옮겨다 심은 것밖에 없는 아파트숲에서 황조롱이는 새끼를 치고 길러낸다.

사람만 살겠다고 만든 아파트숲 한켠에 어렵사리 자리를 얻어서 사는 '사람 아닌 목숨', 사람과 똑같이 '자연 가운데 하나'인 목숨이 있다.

이 책을 보면서 자연과 사람의 목숨, 사람과 자연 삶터를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사람만 살면 되는지 아니면 사람이 자연과 함께 오순도순 지내면 좋은 세상인지 느긋하게 되새기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다. (된장, aladdin.co.kr)

낯선 길에서 만난 박완서의 인생



잃어버린 가방 실천문학사, 박완서 지음

한국 문학의 기둥 박완서가 소설이 아닌 기행산문집 <잃어버린 가방>을 선보였다.

<잃어버린 가방>에 수록된 글은 열두편. 기행지로 국내는 남도, 하회마을, 섬진강, 오대산이 있고 국외로는 바티칸, 상해, 티베트, 카트만두 등이다.

<잃어버린 가방>은 삶이 앞장 서 있다. 몸과 마음이 여행을 품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노작가, 아니 박완서라는 인간의 진실함이 묻어난다. 놀랍다. 앞서 말했듯 책이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다. 사실에 담긴 진실이 놀랍다. 묵직하고 진지한, 가슴을 새기는 삶의 언어들이 꼬리를 무는 <잃어버린 가방>, 끝자락이 유달리 길게 느껴진다. (정군, yes24.com)

기발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현대인의 자화상



달려라, 아비 창작과비평사, 김애란 지음

책을 읽을수록 그녀의 기발한 상상력에 웃고, 공감하며, 감동받고 책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총 9편의 단편들로 이루어진 이 책은 하나하나가 정말 보물과 같았다. 만삭인 어머니를 버려둔 채 나가버린 아버지,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아버지, 어느 날 불쑥 나타나 하루종일 TV에만 매달려 있는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로 인해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또한 한공간에 거주하면서도 한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서야 문밖을 나오는 방식으로 철저히 서로를 외면하고 사는 다섯 아가씨를 통해 개인주의과 획일화 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기도 한다. (달아이, yahoo.com/ysp/libro)

책속의 밑줄긋기



○… '인정한다'는 의미는 내담자가 실제로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공감이다. 불신이나 조롱같은 부정적 반응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내담자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멀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내담자를 인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은 곧바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다. 내담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표시를 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더니 오히려 내담자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후로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더라도 내담자의 아픔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타로의 지혜> 165쪽, 조앤나 워터스 지음,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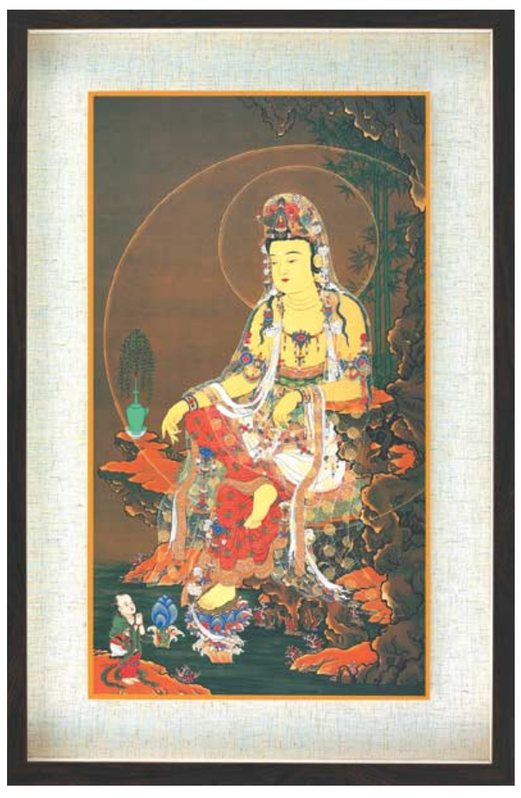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수월관음도

불자 가정의 삼대 가보중 하나!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만사형통의 영험!



높이 88cm, 폭58cm

점안불공과축원불공마치고 출시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밝게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히고 고통과 고뇌를 단념시키고, 재난을 없애며, 화를미리막고, 모든일을 성취시켜 주는 자비로은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 전승공예 대전(불화)대통령상,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상을 수상한 대작이다. 수월관음도는 100%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판화인쇄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게 특별제작했으며 영험의 고려 불화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세월을 장인정신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표구 제작과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표구 뒷면에는 카필라불광사의 품질보증서와 후손에게 가보로 물려주는 소장인란도 들어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드리며 삼배한 후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된다. 가격195,000원

문의전화(02)735-6923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영험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계획했던일 착착!!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돼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 반매훔 밸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달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옴마니 반매훔**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룩되는 진리의 뜻을 담은 밸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서 화를 미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옴마니 반매훔자동밸트**는 밸트에서 원적외선과 멜토에너지가 발산되어 장과 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밸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대학병원에 불심 바람 분다

동국대 일산병원 불자모임 '연우회' 창립 이어
건국대 · 중앙대 법당 마련하고 불자회 결성 박차

병원법당 지도법사 정례모임서 운영방법 교류
조계종 포교원 '환우 불심 잡기' 지원 약속

연초부터 대학병원 불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학병원 불자회 단일 규모로는 최대인 동국대 일산병원에 불자모임 '연우회'가 창립되고, 중앙대 · 건국대 병원에서도 불자회 결성이 추진되는 등 대학 병원에 불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연우회는 병원 전체 직원의 80%에 가까운 4백여 명이 가입해 매머드 병원이란 이름에 걸맞는 회원 수를 확보했고, 중앙대와 건국대 병원도 자체법당을 마련해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건국대 병원 불자회는 소아과, 치과 전문의와 원무 · 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50여명의 불자들이 불자회를 조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미 건대 병원불자들은 병원 내 자체 법당을 마련하는 등 신행활동 여건을 조성했다.

건국대병원불자회 창립추진위원 박연화(45 · 원무과)씨는 "현재 불자회 결성을 위한 병원 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병원 안팎에 불자회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올 2월부터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병원의 불심도 만만치 않다. 병원 측의 반대에 부딪쳐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중대 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현 스님의 원력과 몇몇 의사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지난해 3월 법당 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중대 병원 불자들은 여법한 법당 조성, 소규모 직원 불자법회 봉행, 고대 병원불자회와 연대를 통한 농촌의료봉사 등을 야무지게 진행해 불자회 창립의 토대를 다졌다. 법당과 소규모활동을 바탕으로 한 중앙대병원 불자회는 올 상반기에 공식적인 창립을 하고 신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병원 불자회창립이 잇따라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활동중인불자회들도 신행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부산 동아대병원 연불회(회장 박옥규)는 부산대병원, 인제대 백병원, 경상대병원 등과의 합동법회를 올 상반기에 봉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불교법우회, 영남대 영불회, 동국대 경주 · 포항병원 불자회들도 1998년 중단됐던 연합법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불심을 제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불교계의 다각적인 노력도 모아지고 있다. 특히 동국대, 서울대 등 병원법당 지도법사 스님 8명이 정례 모임을 갖고 병원법당 운영방법을 교류하겠다고 나섰다.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중제 스님은 "이전부터 병원 지도법사 스님들의 모임은 있었으나 체계화 · 공식화되지는 않았다"며 "병원법당 운영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기 위해서 2월부터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도 '병원 불심 잡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최근 동대 병원 불자회 창립법회에 참석해 병원불자회 신행활동 강화를 위한 종단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병원 불자회 창립 붐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직장불자회 전문가들은 △소속 병원(장)의 종교적 성향 △24시간 근무형태 등 병원 특성을 감안한 신행 프로그램 미개발 △종단의 병원불자회 신행활동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부족 등을 병원불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건대 · 중대 병원의 경우, 병원 측의 지나친 종교적 제약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개신교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어, 불교세가 비교적 약하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직장 · 직능불자회들의 특성상 상급자가 타종교인일 경우, 드러내놓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서가 현실적인 애로다. 때문에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불교공부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병원 불자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불자회 개개인의 불교적 소양이 예상보다 부족해 '무늬만 불자'가 양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을 진정한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불교 교리 강좌, 소속 병원의 특성을 살린 '맞춤 법회', '신행 상담의 장'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

서울대학병원 지도법사 은진 스님은 "병원 신행과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병원과 주변 사찰의 연계 등을 통해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도법사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불자 교육을 위한 책자 배포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대학병원 불심이 연초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1월25일 동국대 일산병원 '연우회' 창립 법회 봉행 모습.

우곡선원 청소년 인성교육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2월 25일 오전 10시~12시 부산 해운대 심성개발교육원에서 제12차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곡선원은 이날 프로그램에서 발우 공양, 선기공 수련, 명상호흡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초등생 및 중학생으로, 접수는 2월 23일까지. www.wookook.org (051)740-6288~9

금강선원 선하불교대 개강

금강선원(원장 혜거)은 3월 6일 서울 개포동 선원 법당에서 22기 선하불교대학 개강식을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불교대학은 오전 10시~오후2시에 실시되며, 지도는 선원장 혜거 스님이 맡는다. 동참비는 불교대학 6만원. (02)445-8484

문사수법회 '열반경' 강좌

염불도량 문사수법회(회주 한탑)는 2월 7일~7월 11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오후 8시에 문사수법회 고양법당에서, 2월 10일~7월 14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대전법당에서 '열반경으로 배우는 불교강좌'를 각각 연다. 동참비 10만원. (031)966-3581, (042)485-811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4> 설 음식

엊그제 설을 지냈다. 예나 지금이나 선종 집안은 때때옷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회색 그대로다. 물론 세탁과 함께 빳빳하게 풀을 먹여 새 옷처럼 만들어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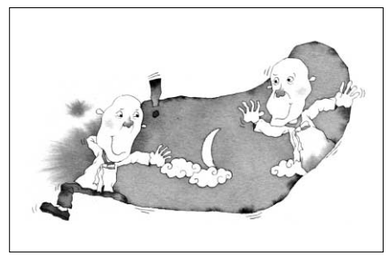
그런데 선어록에 나오는 설 음식은 어땠을까? 물론 그것도 각 산중의 가풍 따라 달랐다.

담주 북선지현 선사는 설날에 대중들에게 이런 설 상차림을 해주었다.

"여러분과 함께 설을 쇠면서 기장쌀밥을 짓고 나물국을 끓여서 온 대중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마른 가지로 불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리라.

그 이유는 남의 집 문앞을 기웃거리거나 남의 담 밑에 기대거나 하여 의심받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함이라."

혹 집 나온 초심자들이 속가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또 정월초하룻날 나무하러 간 다더니 진짜 납자 랍시고 "묵은 해 니 새 해니 분별하지 말게…" 어쩌구 하며 학명선사의 게송을 읊조리며 첫날부터 탁발하러 나설까봐 쌀밥에 벽난로까지 피워놓고 놀이까지 더하여 두 극단적인 대중들을 함께 아우르려는 자비심이 빛나 보인다.



하긴 정월 초하룻날부터 걸식하거나 운수객으로 떠돌아 다닌다면 아무리 신심있는 단월이라 할지라도 잘 봐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암붕 선사는 설날에 만두를 빚었다. 그런데 그 만두가 쇠만두이다. 쇠고기 만두가 아니라 철(鐵)로 만든 만두이다. 피(皮)와 속이 모두 쇠로 된 대단한 기술의 경지를 보여준다.

"무쇠콩으로 속을 만들고 무쇠로 만두피를 만든 무쇠 만두를 가져다가 여러분과 설을 쉬려고 한다."

본래 만두는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노수라는 강가의 수신을 달래기 위하여 사람 머리 대신 밀가루 반죽 속에 소와 양고기를 다져넣고 사람머리처럼 만들어 제물로 사용한데서 기원한다.

그런데 개암붕 선사는 그 보다도 더 탁월한 만두를 빚었다. 쇠만두이다. 전생에 대장장이였나. 아니면 그 과보로 현재 포스코에서 설도 못 쉬고 쇳물이 벌겋게 나오는 고로(高爐)를 지키고 있을까. 거기에서 심심하면 남은 쇳물로 만두모양을 빚으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껍데기는 가능한데 속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그 만두는 씹어서 입안에서 터뜨릴 수 있다면 백 가지 맛이 구족되어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겠지만, 만약 깨물지 못한다면 치아만 상하게 될 터이니 조심하거라."

시니컬한 표현은 선사들의 또 다른 기질이기도 하다. 냉소적인 듯 하면서도 그 속에는 또 '깊은 뜻'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순한 히스테리성 비틀기냐?

아니면 선지(禪旨)가 있는 법문인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종 집안 설 음식의 최고 요리사는 이 선사가 아닐까 한다. 선종적 근본주의 원리주의에 가장 충실한 설 음식이라고 하겠다.

"고개 위의 구름을 가늘게 썰고 못 속의 달을 얇게 저며, 반듯하게 모나게 각을 세워 가득히 담아 격식을 따지지 않고 차려내겠다. 모두의 주린 배를 채우게 하여 영원히 굶주림을 면하게 하리라."

이는 바닥없는 솥에다가 불 없는 장작을 피워서 차린 것 없이 차린 공양이었을 것이다.

원칙론은 지당하신 말씀이긴 한데 보통 사람에겐 감동이 없다는 게 그 한계라고 하겠다. 물론 느낌이 각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좋지만.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쇠만두 · 구름과 달로 만든 음식 등
'깊은 뜻' 담긴 게송으로 수행 독려

2006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7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 목	제 출 서 류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화엄경 , 유식 30송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활안스님, 표주스님 최봉수 교수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6년 2월 1일 ~3월 9일(목)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6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6년 3월 9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3월 개강 신입생 모집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6년 2월 1일 ~3월 6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2월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2월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 3월 7일(화요일)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3월 7일(화요일)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3월 8일(수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3월 9일(목요일) 개강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006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 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요야간반	2 년	매주 수요일(오후7시 ~ 9시)	양성도, 민병훈법사	실 기
• 목요주간반	2 년	매주 목요일(오후12시 ~ 1시40분)	문종순 법사	실 기
• 바 라 반	2 년	매주 금요일(오후 3 ~ 5시)	인각스님	실 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20명(2년)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2006년 3월10일까지 금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바라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4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8일(수) 오후 7시 (야간반)
9일(목) 오전 12시 (주간반)
10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불교의식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이 세상에 내것이 뭐가 있겠는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법흥 스님 (순천 송광사 회주)



누구에게든 아까운 것 없이 다 내어주는 법흥 스님은 모든것을 줌으로써 온 세상을 얻는다고 일러준다.



좋은 경구를 모아 정리해놓은 노트가 5권이나 된다.



매일 아침 경내 모든 전각을 돌며 참배하는 법흥 스님.



새벽 5시 자리에서 일어나면 경전독송으로 하루를 연다.



스님은 질문을 받으면 자상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모든 것 줄때 온 세상 갖게 되지"
아낌없이 다 내주기로 유명
매일 모든 전각 돌며 기도 32년째
수련회 법문은 늘 스님 몫
특출난 암기력의 비결은 '메모'

한국불교의 승맥을 면면히 이어온 순천 송광사. 조계산의 넉넉한 품을 업은 송광사는 언제나 포근함을 전해주는 총림이다. 이맘때면 참배객의 발길이 잦아들어 경내는 한산하다.

하지만 총림의 이면에는 겨울안거에 든 대중들의 치열한 구도열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송광사를 휘휘 감아 도는 개울을 지나 대나무 숲에서 회주 법흥 스님을 만났다.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채 한가로움을 즐기고 계셨다. 언제 누가 찾아오더라도 항상 반가워 하는 스님이 이날따라 꾸중 쉬인 농담으로 멀리서 찾아온 손을 맞는다.

"내놓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무엇 하러 예까지 왔어! 난 큰스님 아니야."

하지만 스님은 하룻밤 묵어가고 싶다는 요청에 놀리던 방에 손수 장작을 땠다. 웬만한 산사에는 보일러를 설치해 난방을 하지만 스님은 여태 보일러를 들이지 않았다. 제 몸 편하자고 소중한 정재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덕분에 옆에서 모시는 시자스님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요사에는 '방우산방(放牛山房)'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가지런히 정리된 앉은뱅이책상에서 군더더기 없는 수행자의 기품을 느낄 수 있었다.

법흥 스님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장으로 시선을 던진다. 스님은 고려대 재학시절 책에 묻혀 살던 국문학도였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읽었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며 눈물짓곤 했다.

"산승이 뭐 볕게 있나. 하릴 없이 책 보면서 살고 있어. 저 책장에 있는 책, 절반도 못 읽었구먼."

스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만, 스님의 일과 가운데 책을 읽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기도와 참선 등 평생 해오던 수행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생활이 되어버린 기도와 수행을 스님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리라.

오후 5시, 저녁공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스님은 하던 말을 멈추고 미련 없이 털고 일어선다. 먼길 왔을테니 공양 먼저 하란다. 주석하고 있는 화엄전을 나서서 후원으로 향한다. 큰절의 어른스님이니 따로 공양상을 받을 만도 하건만, 스님은 대중공양 원칙을 절대로 깨는 법이 없다.

"요즘 대중생활을 꺼리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대중생활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선방에 앉아서 화두 드는 일만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함께 부대끼면서 배우는 것도 수행이야.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법당마다 울려 퍼지던 예경소리를 타고 해가 뉘엿뉘엿 조계산을 넘은지 30여분도 채 되지 않아 송광사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화엄전을 병풍 치듯 둘러싼 대나무 숲으로 별이 쏟아진다.

부엌의 솥에서 더운 물을 길어 세면한 법흥 스님이 불청객을 위해 책이며, 과일이며 이것저것을 내놓는다. 스님은 늘 이렇다. 행여 누구라도 찾아오면 아까운 것 없이 모두 내주고 만다. 뭐라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이 세상에 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것'에 집착하거든. 소유함이 없이 모든 것을 즘으로써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는데 말이야."

스님이 건네는 선물 가운데 책은 반드시 챙겨주시는 '필수품'이다. 스님이 20여년간 나누어준 책이 어림잡아도 3만여 권이 넘는다.

"책에 길이 있어. 난 그 길을 주고 싶은거야. 받은 사람이 내가 선물한 책을 보면서 발심을 하면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받아서 읽고 발심하는 사람이 되게나."

스님은 기억력이 비상하기로 유명하다. 좋은 경구나 책의 내용을 달달 외는 실력은 나이를 먹어서도 변함이 없다. 대중을 향해 쉴새없이 법문하는 것을 들으면, 부처님 말씀을 빠짐없이 기억했다는 아난존자를 떠올리게 된다. 스님은 경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누구에게라도 들려주고 싶은 문구를 접하면 반드시 노트에 기록해 놓는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암기력을 선보이는 스님만의 비법이다. 그렇게 정리해놓은 노트가 5권이나 된다.

나이 탓으로 상좌들의 법문 요청외에는 거의 응하지 못하지만, 송광사에서 열리는 수련회의 법문은 늘 스님 몫이다. 이때마다 특출난 암기력은 위력을 발휘한다. 끊이질 않고 튀어나오는 스님의 경구 외는 소리를 듣는 이들에게서 웃음꽃이 활짝 피기 때문이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던 스님은 오전 5시 성철스님이 정리한 <대불정능엄신주> 독송으로 아침을 맞는다. 가부좌를 한 채 <법화경> '독송요품'과 <관세음보살 보문품> <원각경> '보안장' <고왕경> <금강경> <보현보살행원품> 독송이 차례로 이어진다. 경전을 읽는 한 시간 동안 스님의 자세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스님은 발우공양으로 아침공양을 한 뒤 곧바로 경내 '순찰'에 나선다. 동이 트지 않은 경내를 모두 돌고 나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1974년 송광사 주지로 부임해 시작한 '전각순례'는 주지 소임을 놓고서도 그만두지 못했다. 모든 전각을 돌며 일일이 기도를 올리는 '순찰'은 32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엔 많이 게을러졌어. 예전 같지않은 몸을 핑계로 법당 안에 들지 않고 밖에서 기도를 올리거든. 그런데 말이야.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 와서 그런지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3년째 송광사 주석

법흥 스님은 1931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불심이 돈독한 집안에서 자란 법흥 스님은 58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59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대승사 미래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한 법흥 스님은 사형인 구산 스님의 청으로 74~77년 송광사 주지를 지냈으며, 84년 조계총림 유나를 역임했다. 이후 33년째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다.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지”

법흥 스님의 가르침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간고를 벗어버리고 성불하는데 있습니다. 생멸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요 사람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시인하고 자력으로 피안에 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타력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일체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남을 믿거나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계정혜 삼학을 닦아서 생사해탈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계율을 생명같이 여기고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지혜가 밝아져요.

수행할 시간이 많고 많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젊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아주 심오한 사상입니다. 불가에서는 우주창조의 신, 조물주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우주의 대진리를 체달하는 깨달음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통틀어도 연기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했고, <아함경>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금생의 부부는 전생에 8천겁 인연이라야 가능하고, 9천겁 인연이면 금생에 형제간으로 태어나고 10천겁 인연이면 모자나 부녀간이라는 혈육의 인연이 되고, 한집안 식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7천겁의 인연이라야 한다고

청정한 마음엔 생멸없어…본래면목 깨쳐야
마음공부하려면 청정심·감사심·용맹심 내야

했습니다. 또한 ‘제법이 인연생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필경 공하고, 필경 공하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지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상함과 육신의 허망함을 느끼지 못하면 발심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생각이 안드는데 어떻게 발심이 나겠어요? 사람은 태어났으니 늙고 늙으니 병들고 병드니 죽게 됩니다. 언젠가 죽어야하는 숙명을 지닌 인생이고 일시적으로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가아(假我)입니다. 진짜 나는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할 ‘본래면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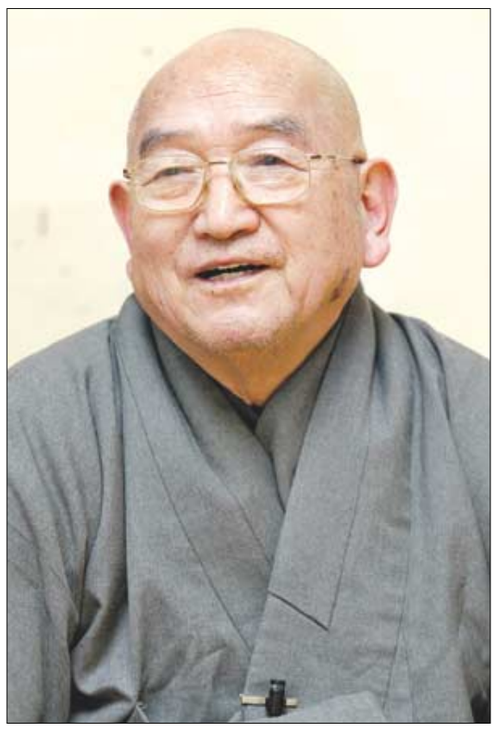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빛깔도 없습니다. 청정한 이 마음자리를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했어요. 함허 스님은 <금강경오가해>에서 ‘천겁을 지내도 옛이 아니고 만세를 뻗쳐도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멸이 원래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자리는 생멸이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 죽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시간이 감에 따라 죽음의 문턱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과 사는 동일 시점에서 출발하여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데 의지는 결국 죽음에 의해 단절되고 마는 것이 모순이고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생즉사(生卽死)요 사즉생(死卽生)인 것입니다.

불교의 공부는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은 상(相)이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정토가 되기도 하고 고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요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입니다. 마음공부를 위해 우리는 세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정심과 감사심, 용맹심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지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선은 왜 해야 할까요. 강력한 정신집중의 현상이 아니면 번뇌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은 학문이 아닙니다.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정토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하는 법흥 스님.

에요. 그래서 설탕이 달고 소금이 짜다는 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언전불급입니다.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스님들이 왜 그토록 고행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깨치고 보면 생사의 근원을 알게 되고 선악의 근본을 알게 되고 물질과 마음의 체성을 알게 되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요즘엔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도 절에 와 참선을 배우려고 합니다. 서양의 물질문명에서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 정신문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면 동양의 정신문명, 그 중에서도 불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이 서서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30여년전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물질의 힘과 정신적인 도덕의 부조화가 현재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고차원적인 종교의 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양에서 실존철학이 나온 것도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계의 노예가 되고 종속화되었기 때문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나를 찾으려는 것이었지요. 실존철학은 자신을 잃고 사는 자기상실의 시대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려는 탈출구가 된 것입니다.

원공법계 제중생(願共法界 諸衆生)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 成佛道)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 날 한 시에 깨닫게 하소서.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1>



놓친 기차는 아름답지 않다 (1)

어느 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모시고 가다가 사위성 입구에서 어떤 불쌍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온화한 성품의 아난 존자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더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청하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 할머니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부처님의 몸에는 32가지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고 빛이 납니다. 그런 부처님을 뵙게 되면 저 할머니는 마음에 더 할 수 없는 기쁨을 일으킬 것이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할머니는 나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지만 아난 존자는 할머니가 가엾다는 생각에 거듭 부처님께 청하였고 부처님은 그런 아난 존자의 청에 못 이겨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라도 들었다는 듯. 이번에는 부처님이 할머니의 시선이 향해있는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는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부처님이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오른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야 할 때에 숙였고, 숙여야 할 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몇 번이나 다가가서 그녀와 눈을 맞추려 하였건만 끝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처님이 자기 옆에 와 있다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구제될 인연이 없고, 부처를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다.”

할머니의 곁을 떠나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조용히 탄식을 하였습니다.(대지도론)

이 글을 읽으면서 할머니와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안타까움이 잔뜩 담긴 시선으로 다가서는 부처님.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설렘도 없이 덤덤히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는 할머니.

인연이 빗겨가도 이렇게 빗겨갈 수 있을까요?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하다못해 왜 이렇게 자꾸 앞을 가로 막느냐며 손사래라도 쳐서 부처님과 어떤 빌미라도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가장 불쌍한 여덟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축생과 아귀에 사는 삶, 장수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장수천(長壽天)과 변지(邊地, 웃타라쿠루)에 사는 삶, 신체기관에 너무나 큰 장애가 있는 삶, 세속의 잡다한 지식에 마음이 꽉 차서 살아가는 삶,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자의 삶이 그것입니다.(유마경)

이 여덟 가지 삶이 왜 불쌍한가 하면, 고통이 너무 모질거나 행복이 너무 넘쳐나서 또는 너무 많은 이론이나 그릇된 견해들에 꽉 차 있어 그 마음에 손톱만큼의 여백이 남아 있지 않아 부처님과 같은 성자들의 귀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가지 삶은 그렇다고 칩시다. 현실적으로 감내해야할 일들이 너무 커서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부처님이 다가갔

구제될 인연이 없고 부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곁에 부처님이 있어도 소용없다

지만 저 할머니처럼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경전에는 이따금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가장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 마음속에는 어김없이 두 가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대체 부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님을 몰라도 한평생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만났을 때 법문 좀 듣지 않았기로서니 뭐 그리 엄청난 행운을 놓친 양 호들갑을 떠느냐 이겁니다.

둘째는 그렇게 훌륭한 말씀이라면 왜 부처님은 외면하거나 떠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고 설득하고 강제로라도 들려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위 <대지도론>의 이야기는 <인도불교사1>(에띠엔 라모뜨 지음, 호진 옮김, 시공사, pp.104~105)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찰나·영원 시간에 담는 작업 한평생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세계 미술시장에서 통하는 유일한 한국인 작가,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시도한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이 1월 30일 오전 10시경(국내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휴양지에서 74세로 일기를 마쳤다. 그의 유해는 화장된 뒤 49재를 거쳐 그가 태어나고 공부하고 활동한 한국 독일 미국 등 3국을 포함한 5~10개국에 나눠서 안치될 예정이다.

백남준의 예술세계 저변에는 불교가 흐르고 있다. 그는 비디오 아트라는 첨단 소재로 시공을 초월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하려 애썼다. 경기문화재단의 주도로 오는 6월 착공하게 될 백남준미술관에서는 'TV부처'를 포함한 작품 67점과 친필 현판 등이 선보인다. 미술관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돼 2008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평생 동양과 서양의 만남, 과학과 예술의 조우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백남준의 작품과 그 속에 녹아있는 불교관을 살펴본다.



1974년작 'TV 부처'.

1월 30일 타계한 비디오아트 창시자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 불교



미국 뉴욕 소호에 있는 스튜디오.

2008년 국내에 백남준미술관 개관 작품 67점 전시 예정
TV부처, 손부처, 카르마 등 선(禪)사상 담는 작업 꾸준히
단순 비디오아트가 아닌 철학적 탐구 예술적 대안 제시

백남준은

1932년 7월 20일 태창방직을 경영하던 부유한 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예민한 감수성과 음악적 이해로 고교 시절에 12음계를 창안한 독일의 현대 음악가 아놀드 쉔베르크에 매혹됐다. 백남준은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쉔베르크를 전공으로 미학과 현대음악을 공부했다. 1956년 현대음악의 중심지인 독일 뮌헨 음악대학에 입학한 후 미국인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를 만나 동양정신 특히 절대 허와 무를 신성화하고 모든 것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선불교의 핵심을 발견한다.

1996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도 2000년 1월 생방송 프로그램 '호랑이는 살아있다' 2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과 7월 서울 호암갤러리 로댕갤러리에서 전시된 '백남준의 세계' 등을 통해 끊임없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1963년작 '선(禪)을 위한 TV'.

'TV부처'. 백남준의 가장 유명한 비디오 조각 중 하나다. 불상이 모니터와 마주하고 앉아있는 이 작품은 모니터 뒤의 카메라가 불상의 정면을 촬영해 머리와 가슴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게 돼 있다. 백남준은 불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분신 또는 자신의 배경적 메타포로 선택해 자아검증을 시켰다. 불상 대신 그 자신이 카메라 앞에 자리 잡을 때도 있었다. 이때 그는 보살로 분장하고 자신과 부처를 동일시했다.

'TV부처'가 단적으로 드러내듯 백남준의 작품은 불교적 사상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禪)을 위한 TV' '카르마' '손부처' '테크노 부처' '머리를 위한 선' '영화를 위한 선' 등 선사상을 담은 작품들을 꾸준히 작업해 왔다. 다작작가로 평가받는 백남준의 작품은 1000여 점 정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100여점 정도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불교의 인연은 그의 스승인 존 케이지로부터 비롯된다. 1958년 독일 콜론 대학에서 만난 존 케이지는 백남준의 관심사를 음악에서 시각예술로 바꿨다.

현대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는 1950년대에 동양철학의 선불교를 공부하면서 찰나의 개념을 그의 음악의 대주제로 도입했다. 이와함께 선(禪)을 그의 음악이론을 정립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그에게 음악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지워버리는 탈세간의 불교적인 방안이었다. 케이지가 지닌 '찰나'의 개념은 백남준에게 이미지의 찰나적 우연성과 이미지의 찰나적 조합으로 제시된 것이다.

1963년 독일 소도시 부퍼탈에서 열린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 전시회에서 '선(禪)을 위한 TV(Zen for TV)'를 선보였다. 비디오아트의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이 전시회에 선보인 '선을 위한 TV'는 '선(禪)'사상을 TV 모니터에 이어진 '선(線)'을 통해 재치있게 표현해 냈다. 제1회 리용비엔날레에서 재현하기도 한 이 작품은 TV를 조작하여 추상적인 하나의 선으로 모든 이미지를 통합시켰다. 여기서 백남준은 순간과 영원이 하나의 선으로 모니터 상에서 합일되는 것을 통해 선사상을 담았다.

'손부처'는 바삐 움직이는 현대인의 영상 위로 참선하고 있는 수행자의 실루엣을 드로잉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교사상을 표현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과 'TV 시계' 등에서는 시간의 상징인 달과 시계를 주제로 순간과 영원은 동일하다는 불교사상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찰나도 영원도 한 생각 속에 있다는 선을 그의 시간개념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멀티모니터 작품이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2층에는 팔만대장경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비디오아트로 표현한 '고려대장경'이 있다. 당시 이 작업을 요청받은 백남준은 "첨단 정보화시대에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며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1998년 경주엑스포에 출품한 '백팔번뇌' 등 불교사상을 끊임없이 작품 속에 담아왔던 백남준이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디오아트의 시조여서가 아니다. 미디어 메커니즘에 대한 선사상 등 철학적 탐구와 대중미디어의 단방향적 전달방식을 비판하며 예술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있다.



1988년작 '손부처'.

탄생 죽음 같은 중요한 일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듯 생방송을 함으로써 인간의 일회성 삶을 표현하기도 했던 백남준. 이제 그는 가고 그의 작품만이 그가 풍미했던 세계와 사상을 담은 채 남아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제공=경기문화재단

교계 최초 4년제 불교음악학과 서울에 유치!!
2006학년도 명신대학교 불교음악학과 신입생 / 편입생 모집

1,600여 년의 유구한 불교 전통음악을 계승 · 발전시키고 있는 사단법인 불교음악협회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명신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으로 국내 유일의 불교음악학과가 서울에 유치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을 맘껏 펼치십시오.

모집내용	합창지휘전공 / 작곡전공 / 성악전공 / 피아노전공 / 관현악(국악/양악)전공 / 범패전공
전형방법	서류전형-전공별 실기-면접 및 구술
원서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2. 20(월) - 2. 25(토) 2) 교부 및 접수처 : 서울 교학처 (전화 02)725-7527,7849), 또는 본교 교학처
자 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 직장인 및 일반인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다운로드 / http://www.myungshin.ac.kr) 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3) 전형료 30,000원
실기/면접	2006. 2. 26(일) 오전 10시
입학상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파빌리온 901호 전화 02)725-7527, 7849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산 212-1 명신대학교 061)742-9235 (음악학과장 한석규 교수)
졸업후 진로	모든 음악 기관 및 단체에 진출이 가능하다. 대학원, 교사, 공무원, 출판사, 연주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원, 연구단체, 방송국, 신문사, 기업체의 홍보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이 가능하며, 특히 불교계 합창단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활동이 가장 유력하며 협회가 전폭 지원한다.
특 징	1) 교계 최초 불교음악학과 4년제 학사학위 취득 2) 입학과 동시 불교 연주 단체와 연계, 현장적응 및 실기강화를 위한 인턴제시행 3) 입학과 동시 개인 능력에 따른 활동 지원 4) 졸업후 취업지원 및 관리 5)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휴일 수업 가능

명신대학교 / 사)불교음악협회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6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10명	6개월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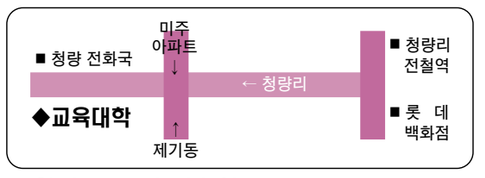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 木)
▶ 접수일자 : 2006年 1月 25日 ~ 2月 15日
▶ 입 학 일 : 2006年 2月 16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끝이 아닌 인연을 따라 (하)

강호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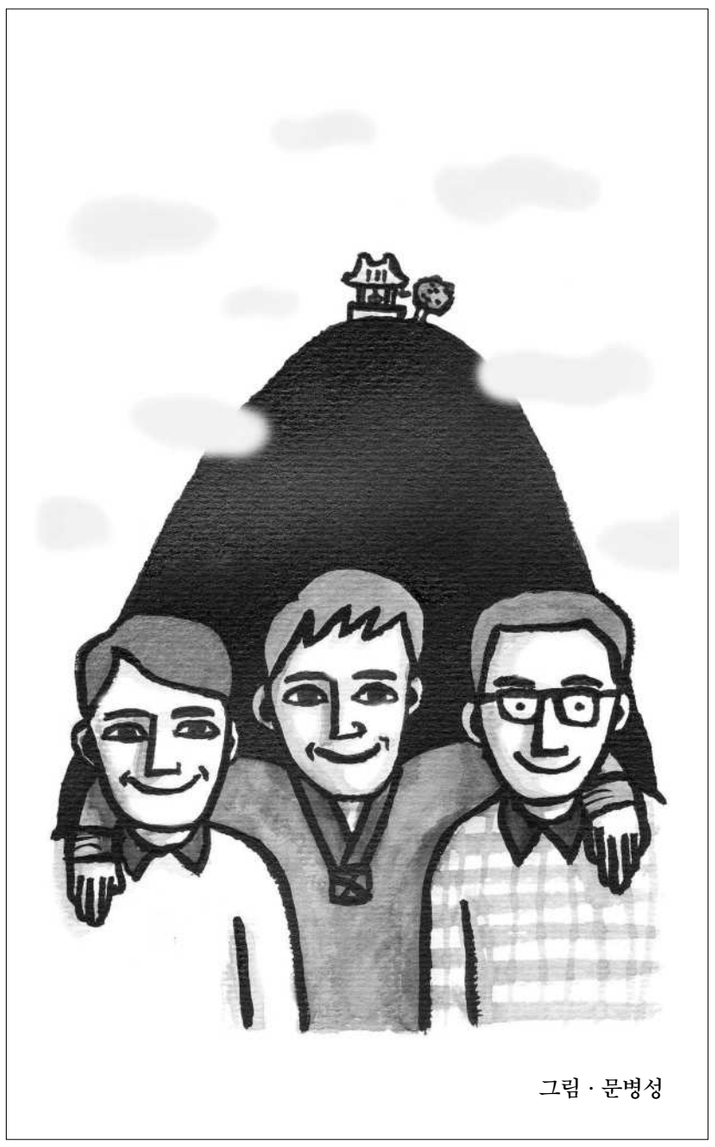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현각 스님과 '출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난 후 불자로서의 길을 걷는 데에 한층 더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감사한 마음과 부처님께 한 걸음 더 다가 간 듯한 뿌듯함을 안고 계속 정진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 번 스님을 찾아뵐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각 스님께서는 나를 기억해내시고는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스님께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될 지 방법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 권유로 매일 108배 하며 하심 실천

봉사 통해 믿음·실천 둘이 아님을 깨달아

"후배들에게 꿈 주는 선배 되자" 다짐

현각 스님은 "하루에 한 번 108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절 수행이야말로 '하심(下心)'의 근본이라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수행의 근본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 나의 수행태도는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스님 말씀 한 마디가 불자로서의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심도 가끔 했던 내게 스님 말씀 한 마디가 '청정수'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스님을 뵙고 나서 나는 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8배를 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내게 무엇 하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나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계속해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마음을 놓고, 하루 하루를 108배 수행으로 채워나가다 보니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봉사도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발심하게 만들어주신 스님을 나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현각 스님은 이 시대의 선지식인이며 수행자들의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나는 스님께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고 그 방법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수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수행을 하고, 이곳저곳의 사찰에서 선지식을 만나 뵙던 내가 현재 적을 두고 있는 사찰은 봉은사입니다. 발심 이후, 우연히 집을 나섰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찰을 찾았다는 만족감과 전통 사찰 특유의 편안함으로 반긴 곳이 바로 봉은사입니다.

어디에 있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현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봉은사가 내 마지막 수행처, 영혼의 안식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 봉은사 청년회 도반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인생의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개인적인 수행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곳 도반들은 모두들 보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적이며 열정적인 신심의 모습들. 나는 아직 수행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봉은사 편집부 활동을 하고 있고 봉은사 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회장님과 회장단 법우들을 보면 내심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생각해 보니, 발심하기 이전에도 나는 묘한 불법의 인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익명의 봉사자로서 무의탁 노인의 집을 방문, 봉사를 마치고 산길을 따라 내려오던 중 마음 한가운데 사랑, 행복, 평화, 기쁨…. 참으로 말하고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이 온 세상을 고요하게 가득히 메우는 묘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때의 상황을 이해 할 수는 없지만 작년부터 불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스님과의 배움을 통해 어렴풋이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불이(不二)'라는 진리와의 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이웃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각으로 자비심을 알고 실천하며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써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보살이 정진해야 할 삶이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은 바로 우리가 다니는 도량 안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봅니다. 나는 아직 많은 경전을 읽은 것도 아니며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믿음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순간 행하고 싶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내 젊은 시절,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하고 있는 봉은사 청년회 도반들과의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하고도 짧은 시간에 봉은사 청년회에, 더 길게는 미래의 봉은사 청년인 우리 후배들이 조금 더 안정되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임한다면 불자로서 그것보다 더 의미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불이(청년회 모두의 마음은 하나입니다!)'의 깨우침이자 자비의 커다란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우리들이 지긋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한 법우들과 후배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보람된 마음으로 흐뭇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법우들과 함께 미래에 패기와 용기, 희망, 사랑이 가득한 봉은사 청년회를 보며 마음 가득히 기뻐할 아름다운 소망 하나를 꿈꾸어 보겠습니다.

나는 불법에 귀의하고부터 무척 행복해졌습니다. 7년 전 세운 서약을 꿋꿋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함께 할 좋은 도반들도 있어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의 순수한 초발심, 이웃을 향해 따뜻한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받은 불명 '광공(光空)' 처럼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天 一 氣 功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재복 회장이 오대산에서 만 3년간 매일 100리(40km)씩 걸으면서 얻은 행선법의 의미와 진공 호흡법의 깊은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1단계수련 : 3박 4일 코-스
<매월 1회 실시-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내가 병드는 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재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제 2기생 모집
명리학 최고 지도자 과정

우리 이제 앉아서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단연코 일어서서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그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 봅시다.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

1학기	2학기
명리학 핵심이론 정리	명리학 실전풀이
명리학(격국용신과 조후강론)	명리학 실전 통변기법
자미두수 기본이론	자미두수 격국과 실전풀이
육효 기초핵심이론	육효실천풀이와 내정법
타로 이론 및 실습	서양천문해석 강해
인상학 기본 이론	행운을 부르는 인상학 연구
음택 / 양택	풍수인테리어. 현공풍수 특강
길흉 방위 이용 개운법 특강	성명학 (주역작명법 포함)
교수법 기본 이론	교수법 실전 연습

입학안내

- 입학자격 : 역학분야 3년이상 연구자.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입학 특혜. 전문상담사, 권위있는 교육 강사 희망자 대환영.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정원 :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120만원(학기당)
- 과 정 : 1년(2학기제)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및 졸업패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명리학 교육 강사' 자격증 취득
- 동방대학원대학교 명리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한국 전통과학아카데미 학술위원 위촉 및 학술 위원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간 강사로 활동

교육기간

- 입학식 : 2006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 개 강 : 2006년 3월 2일 목요일
- 교육기간 : 1년 (2학기)
- 교육시간 : A반 - 매주 수요일, 목요일 14:00-17:00 B반 - 매주 일요일 13:00-18:00

교 수 진

한중수 / 박영창 / 유방현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문 의 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학과 ☎ 02)745-2140~3
유방현 011-9902-4640 / 박영창 011-730-7212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2월 12일은 '정월대보름'

달에 건강·풍요 빌어 봐

달 보며 참불자되기 다짐하는 날
사찰선 방생, 지역따라 놀이 다양

밸런타인데이 준비로 요란하다. 색색으로 포장된 초콜릿과 고가의 선물세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하지만 밸런타인데이 이틀 전인 2월 12일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이란 사실은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외래풍속 대신 올 한해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비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챙겨보는 건 어떨까?

▷정월대보름과 불교

동안거 해제일이기도 한 정월대보름은 불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큰 행사다. 보름달을 바라보며 둥글고 원만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리라는 원력을 다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 부처님오신날에 행하는 연등놀이는 원래 정월대보름에 연례적으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등을 밝힘으로써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던 것이다. 또한 신라 때에는 정월대보름에 찰밥과 약과 · 유밀과를 만들어 불전에 올렸던 풍습이 민간에서 '한과'로 발전하기도 했다.

정월대보름에 자기 나이 수대로 다리를 밟거나 12개의 다리를 건너면 한 해 동안 재앙이 없고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하는 '다리밟기'는 불교의 '월천공덕(越川功德)'에서 유래된 놀이다. 월천공덕은 강으로 단절된 공간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와 복전(福田)을 짓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오늘날 각 사찰에서는 방생법회와 대보름법회를 열거나 대보름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월대보름에 쥐를 쫓는다는 뜻으로 논밭둑에 불을 놓는 쥐불놀이.

▷대표적 놀이는?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다리밟기와 지신밟기, 줄다리기 등이 있다.

지신밟기는 대보름 무렵 마을의 풍물패가 집집마다 돌며 흥겹게 놀아주고 축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마당밟기, 매귀(埋鬼), 걸립(乞粒)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줄다리기는 농촌에서 전승되어온 의례로, 볏짚을 이용해 암줄과 숫줄을 만든 후 마을단위로 편을 나누어 줄을 당기게 되는데, 암줄이 승리하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또한 아이들은 이날 겨우내 날리며 놀던 연을 띄운 후 줄을 끊어 날려 보내거나 달집에 넣어 태우기도 한다. 연에다 '액(厄)'자나 '송액(送厄)' '송액영복(送厄迎福)' 등의 글을 써서 띄운 후 해질 무렵 연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액운을 날려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련하는 정월대보름 행사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다. 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 저녁, 마을 동산에 올라 달을 맞이하며 절하고 소원을 빈 후 장작, 볏짚, 솔가지, 댓가지로 높이 쌓아 만든 달집에 불을 살라 한 해 농사를 점치는 것이다. 쥐불놀이는 논두렁에 불을 질러 쥐를 쫓음으로써 그해 풍년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대보름 아침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의 상대방 이름을 부르며 '내 더위 사가라'고 외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더위를 팔면 그 해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믿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글=여수령 기자

자료제공=한국사찰음식연구소



정월대보름 이런음식 어때요?

정월대보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오곡밥이다. 찹쌀, 차수수, 팥, 차조, 콩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지은 오곡밥은 다양한 영양소가 담겨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모든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뜻도 깃들어 있다.

오곡밥과 함께 늦가을 갈무리해 두었던 호박, 고사리, 가지, 곰취, 버섯, 시래기 등의 9가지 나물을 데쳐 무쳐 먹는 것도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를 '묵은 나물'이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봄을 앞두고 묵은 마른 나물을 먹고 겨우내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한다는 속뜻이 담겨있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따르면 정월대보름 전날에는 악귀를 쫓는다는 뜻으로 붉은 팥을 이용해 죽을 쑤기도 했으며, 대보름 저녁에는 원소병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원소병은 치자 등으로 물들인 찹쌀가루를 익반죽해 대추소, 유자절임 등을 다져 넣고 둥글게 빚어 녹말을 묻혀 끓는 물에 삶아 건져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띄워내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귀밝이술과 호두, 잣 등의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부럼 등도 있다.

■묵은 나물 무침



재료 : 말린 취나물, 말린 고사리, 말린 토란줄기, 말린 가지, 말린 시래기, 호박고지, 무 1/3개, 숙주, 시금치 조림간장, 들깨가루, 들기름, 소금 · 깨소금, 참기름, 설탕

① 말린 취나물과 고사리, 토란줄기, 시래기는 푹 삶은 다음 건져서 찬물에 담가 불린다. 충분히 불면 건져서 물기를 꼭 짜고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 놓는다. ②손질한 취나물에 들깨즙을 자박자박하게 붓고, 간장으로 간이 베게 한 후 은은한 불에서 익을 때까지 익힌다. ③고사리와 토란줄기는 5~6cm 길이로 잘라 들기름, 간장, 물을 넣어 간을 한 후 은근한 불에 푹 삶아 연하게 한다. ④마른 호박고지와 가지, 시래기는 살짝 삶아서 물기를 꼭 짠 다음 들기름, 들깨즙, 집간장을 넣어 간이 베게 한 후 은은한 불에 푹 삶는다. ⑤무는 0.5cm 두께로 채 썰어 들깨즙, 소금으로 간한 후 뚜껑을 덮어 푹 익게 한다. ⑥손질한 숙주는 생오이채와 같이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하여 무친다. ⑦시금치는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여 깨소금을 뿌린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5>



사찰식 마요네즈 · 토마토케첩

제가 사찰에서 처음 과일샐러드를 먹어본 것은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 많은 신도님들이 사찰을 찾는 날이기에 공양간은 분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양주 보살님들은 모든 일들을 착착 순서대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내 일인 듯 법복을 걷어 올리고 일하시는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니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세 드신 노보살님 한 분이 열심히 두부를 갈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궁금해 하는 절 보고 노보살님은 "주지스님께서 도반스님 절에서 배워 오신 마요네즈"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바로 '채식 마요네즈'인 것이었죠.

두부를 갈고 녹차기름으로 농도를 맞춘 마요네즈를 과일과 버무려 신도님들께 공양하시겠다는 노보살님.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끝난 후 주지스님께 녹차 한 잔을 청하며 마요네즈와 토마토케첩 만드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천연의 먹을거리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속에서 절을 찾는 신도님들께 색다른 먹을거리를 권하고 싶은 스님의 큰마음을 엿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은 절이지만, 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공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자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이 신체를 양육하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음식 속에 바로 진리가 있고 음식 속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듯 비록 마요네즈와 토마토케첩처럼 흔한 음식이지만, 신도님들께 맛보이고자 만드는 법을 배워 오신 스님의 큰마음과 그것을 우리들을 위해 만든 노보살님의 수고에 그저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만드는 법



<사찰식 마요네즈> 재료: 부침용 두부 1/2모, 땅콩 2큰술, 호두 4개, 죽염 약간, 감식초 3큰술, 꿀 1큰술, 녹차기름 1컵

① 두부는 뜨거운 물에 더쳐낸 다음 작은 크기로 잘라준다 ② 땅콩과 호두는 껍질을 제거한다 ③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갈아준다



<사찰식 토마토케첩> 재료: 토마토 5개, 토마토 페이스트 1큰술, 감식초 2큰술, 표고버섯 달인 물 2큰술, 황설탕 1큰술

① 토마토는 윗부분에 열십자로 칼집을 낸 후 뜨거운 물에 데쳐 껍질을 벗긴다.) ② 토마토 씨를 제거하고 잘게 자른 후 토마토 페이스트와 함께 끓여준다 ③ 한소끔 끓여준 후 거품을 제거하고 믹서에 갈아 체에 곱게 내린 후 감식초와 황설탕, 표고버섯 달인 물을 넣어 수분이 날아갈 때 까지 끓여준다

※ **맛내기 포인트** : 사찰식 마요네즈는 두부로 만들므로 2~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하절기에는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1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안내 2월 17일 금요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금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13~6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법당 : 30평
• 요사 : 80평
• 부지 : 176평
• 가액 : 2억 (융자 7000포함)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6억 (즉시법회가능)

• 위치 : 전남
• 법당 : 18평
• 요사 : 37평
• 부지 : 15600평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 평수 900평정도, 실평수 2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종각 2평 요사채 방6개
주방시설완벽,대형주차장 있음
• 특징: 부자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 요세의 사찰임
사찰연역 약 60년 도량
• 가액: 5억

010-4877-590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중산리
• 토굴 기도처 암자110평 상,하채
• 가액: 6500만원

011-827-8191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휴계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1-9757-724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 (방10개)
• 가액: 3억9천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양군 수동면
• 임야 13,000평. 과수원 4,300평 대지 100평
• 남향 주택 30평(황토방 있음)
• 가액 : 6억5천만원
※산머루, 옻나무 심어져 있음
산에는 밤나무
정원 잘 꾸며져 있음. 누각 있음

011-232-1993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에서 15~20분거리
• 대웅전 25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600평 신축건물, 고건축 경관수려함 경내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4억(절충가능)

011-530-1808
011-768-8744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사찰안내(전세)

• 위치: 대구광역시
• 부지 : 150평 • 요사채 : 15평
• 법당 : 30평(임법당)
• 가액 : 전세 9천만원(매매가능)
• 특징 : 산과 계곡이 있는 도심사찰임

• 위치: 경남 진주시 소재
• 부지 약1000평
• 법당 : 30평(목조단청)
• 천불전 : 40평(2층.단청)
• 기타 : 산신각, 종각,석등
• 가액 : 4억6천만원
• 특징 : 전통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청 도보 5분거리
• 평수 33평 4층 건물중 3층
• 법당 시설완비 방, 부엌,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2335-7721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2-60호 당고개역에서 1분거리
• 법당 : 실평수 18평 1층 반지하 17평, 옥상 다락방
• 부지 평수 33평
※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 뉴타운지역으로 향후 유리
• 가액 : 3억 3천만원

02)939-2809
011-894-2809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 3 동 면목역도보 10분거리
• 평수 : 4 층건물, 3 층 약70평
• 시설 : 법당, 방3, 거실겸주방 욕실,창고,주차장,환기시설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271-760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급)밀양사찰 얼음골 부근

• 대지: 512평, 건평 100평 법당 뒤 대밭있고
•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언양 20분거리
• 대지전체 둘레 돌담 황토방처럼 전체 수리되었음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실내 목욕탕 실외화장실2개 황토집 2채. 옛날 독 100점 포함
• 마을 앞뒤가 틔여서 전망좋음
※ 비구니, 보살님, 노스님 아주 적합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572-1501 / 011-9512-511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건물 : 요사채, 법당 : 45평
• 특징 : 소원불, 800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포교당안내

• 위치 : 익산시 공원 및 상업지역 3층 중 3층건물
• 평수 : 50평, 옥상사용 법당 : 24평, 삼성각 5평
• 방2, 주방 및 휴게실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답사후 절충. 모든 조건 수용

011-679-1080

사찰안내

• 위치: 창녕읍에서 7분거리
• 평수 : 148평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차진입가능
요사채 3칸
• 답사후 가격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011-9502-3235

암자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근교 동강앞
• 대지: 200평, 전: 70평
• 건축물: 30평(임법당)
• 가액: 8500만원
※ 주인직접(절충가능)

011-792-8969
033)378-4311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사 찰 안 내

• 황금알땅 종교부지 (5160평)
• 천하명당 화장터옆 납골당 터 민원없음. 국유지 몇백만평속 사유지한필지
• 관리지역 형질변경완료 토목공사중
• 매가 : 10억 투자자 모심

• 위치 :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 290평 건평 110평
• 새건물 통나무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10개
• 사찰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11-9004-3613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5백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016-9301-3575
042)585-357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 건평 60평. 시설일체 완비 (내부시설 황토)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철학이나 침술하시는 스님이나처사 환영
※ 전통 쑥뜸 좌욕기 완비

011-790-4809
033)631-4831

포교당안내

60평의 포교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비구, 비구니스님 인연기다립니다

• 위치: 부산 남포동 4층 60평 정관(엘리베이터 있음)
• 옥상 60평 사용, 법당 22평 방3개, 접견실 2개
• 책임지고 잘 운영하실 분이나 같이 운영하실분 양도도 가능
• 가액: 보증금 3천5백. 시설비 별도협의

011-301-4949 / 051)301-494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	륙	시		춤	전
식	재	재	식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학인스님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제2기 범음범패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천도재,천수바라작법
011-9601-66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빠빽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역학방문지도

명리학, 관상, 수리신점
초보에서 고급까지 창업책임지도
스님 특별대우
자연이치가 곧 명리이다
해임법사 ※전화상담환영※

02)3437-8433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동자승 모집

◆ 대상 : 만 5~10세 미만의 남 · 여 아동
대한불교조계종 충효사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 연락(문의처)

054)338-1117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변비,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영희

010-3121-49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전북 고창
063)564-2861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9491-9227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포교당 연락주십시오

의식여법하게 하는 비구입니다(100일기도 가능)
010-8482-00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78-0530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259-5989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며 평생 함께 할 비구니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7-569-3722

스님 급히 모십니다

▷충북
(음력 1월 15일 이내에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011-493-74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전(비구 또는 비구니) 스님 구합니다

▷40~50대
오래 같이 지내실분
011-828-3618

병술년 새해 조용한 산사에서 백일 다라니 용맹 기도 정진 하실 보살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4)534-5892
011-468-9022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 자 모 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 주 특 별 개 인 지 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六壬 (육임) 대강의(운명학의 제왕)

참으로 신통하여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육임,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만 육임, 이제 체계적인 방법으로 쉽게 배운다.

육임은 출생 연월일시가 아닌 시간과 태양의 기운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써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궁합이 잘 맞는지, 어떤 사람과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 시험, 취직, 혼인, 매매, 돈 등의 목적사가 언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살고 있는 집이 길한지, 흉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 이사를 어느 방위로 무슨날 해야 언제 개운이 되는지
- 지금 누구의 산소탈인지, 그 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 묘지가 길지인지, 묘속이 어떤지
- 무슨 귀신의 침해인지 그리고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
-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언제 낫게 될지, 어떤 귀신이 침해 했는지
- 무슨 부정 빌미가 들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소 할 것인지
- 부적, 굿, 천도, 고사 등 수법을 행할 때 효과가 있겠는지, 언제 해야 좋을지
- 잉태아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어떤지를 상대가 들어서자 마자, 만나자 마자 즉시 말해주게 된다.

◆ 분반 : 1) 육임 정규반 (일반인, 종교인,역술인,무속인...)
2) 육임 풍수반 (추후 공고, 육임을 공부한 분, 풍수가, 역술인, 무속인...)
◆ 일시 : 2006년 2월 10일, 17일 13시-18시 (3-4개월)
◆ 강의 : 동재(육임강주, 동방대학원대학교 학생회장)
◆ 교재 : 육임강의록 12권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천안숙

H·P 017-280-3034(충남 천안시 성정동 성정초교 앞)
성남숙 : H·P 011-9637-4536(경기 성남시 모란역 2번 출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서화당인생풀이 V2.2(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특별 할인 후 : 총3장 220,000원(무료?)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 상담기록, 출력기능, 상호등록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문답형), 알기쉬운 약선요법(식품류,약재류) 사상의학강의실, 나의건강정보, 생활속의 약선요법, 사상체질식단 등
인장성명학	개요(성명학,인장학,개운법) 성명풀이(한글,한자) 음양오행 사주풀이 작명(음양,음오행,수리<원격,형격,이격,정격>,감명결과) 상호등록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국내최초 동양철학 사주자판기 "사주천하 특허 획득" 및 "LG산전 500여대 납품실적"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 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110,000원 총 ₩440,000원에서 -50% 할인 후
▶총3장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구입방법 1안 : 금번행사 특별가격 ₩220,000원을 입금하고 구입하는 방법
2안 :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가입을 변경하고 ₩110,000원에 구입
3안 : 사무실과 집의 인터넷을 변경 후 "무료"로 구입하는 방법

위 특가행사의 구입방법중 고객님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통신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이명수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구요! 지금보다 최대 25배 빠르고 저렴한 LG파워콤(방송광고중) 또는 현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쓰세요.
전화 한 통화로 전국에 가입 설치합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740901-01-310096 우체국 313049-01-003391
농 협 453050-55-002174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교수 송인창
전국대표번호 ☎ 1600-4684(사주팔자) / H·P 010-3366-3366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으로 치료한다 - 기천탕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분은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이 개발 처방한 기천탕으로 치료하세요

기관지천식이란 천명을 수반하는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시 계속된 뒤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풀이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강하게 경련하여 수축되고 기관지의 내강은 좁아져 버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기관지 안쪽의 점막이 염증으로 말미암아 비후되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관지 점막으로부터 점조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불어나서 담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기관지의 내강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천연생약으로 연구 개발한 기천탕을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임상결과 많은 환자가 치료됐으며 복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천식을 상담하실분은 전화 및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기천탕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단, 지방은 전화상담만으로도 기천탕을 처방하여 보내드립니다.

윤량한의원 원장이 개발한 처방으로 기관지천식에서 해방되세요.
위의 천연생약으로 개발한 기천탕은 한의사와 상담후 처방됩니다.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야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간(肝)이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영험 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해조음 刊 원통 저 신국판 390쪽



금강경 속에
담긴 사람수명
팔만사천세의 의미

아함경에는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되면 미륵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미륵이 오시면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의 시대가 된다.
이러한 믿기지 못할 내용이 금강경 사상이다.

금강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 후 오백세(말법시대)를 위한 경이다.
2. 이 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그를 천대 멸시, 배척 할 것이다.
3. 이 경을 공부해서 얻어질 공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워 미쳐버릴 정도이다.
4. 수명에 대한 상(相)을 가진 사람은 이 경을 이해 못한다.
5. 법신과 세계와 중생은 본래 하나로 합한 모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은 사람 몸이 금강불괴신이 되어 팔만사천세를 사는 진해탈을 암시하고 있다.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보급 총판 운주사 02) 3672-7181 ~ 5 / 010-3699-9120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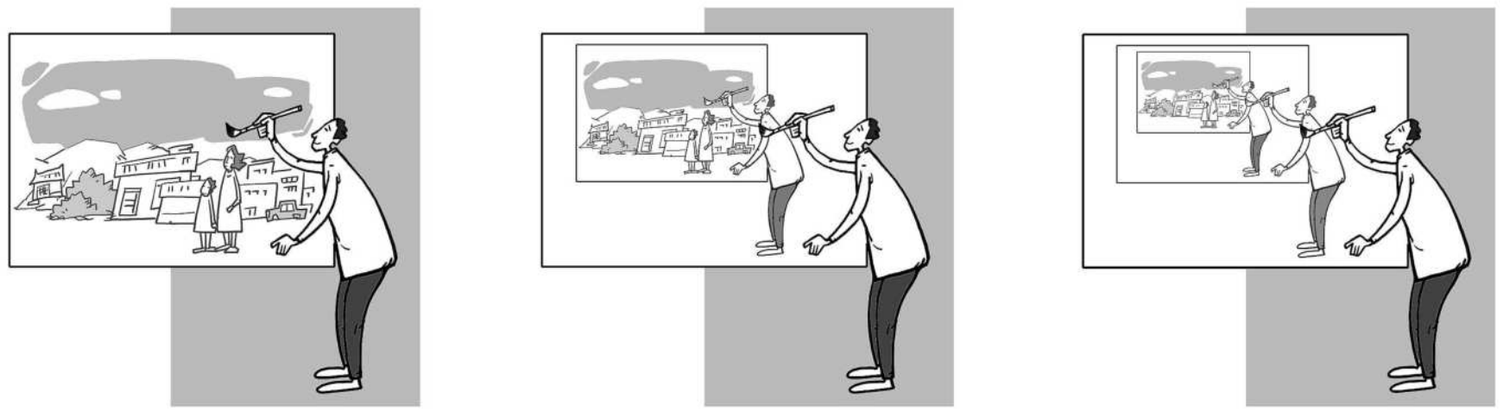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여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라!

일체 만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듯 우린 이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끼리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쳐 진화되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 속에 모든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거든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잉태됐을 때에 열 달 동안 그 모습들을 가지고 형태를 바꿔 가면서 조성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될 때에 처음부터 사람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알처럼 흐늘흐늘하게 시작이 돼서, 올챙이처럼 돼 가지고 수없이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열 달을 채워서 인간 모습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모자라는 거, 잘못되는 거, 또는 잘못된 모습들, 하(下)의 생명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둘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수없는 나날을 지나오면서 그런 모습을 거쳐서 진화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의 내 모습, 내 모자람으로 보고,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도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봐라 이 소립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느냐 하면, 그렇게 거쳐 온 그 중생들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나입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업식을 지닌 인연에 따라서 모두 작용이 되고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가 있습니다. 사량적인 육안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들어 있는 만중생들이 모두 제가끔들 한 가지씩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뿔의 기능, 말은 발차기 기능을 소유하듯이 밖에 있는 일체 만물들, 인간 이하의 모든 동물들도 역시 한 가지씩은 기능을 다 가졌다고 봅니다. 촉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감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청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후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모두 한 가지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닥칠 때마다 우리가 타파할 수 있고 또 만법으로써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씩 기능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써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지 다 내 마음으로 그쪽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하면 그쪽에서 그대로 응하고 돌아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 몸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내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도둑질을 하러가자 하면 도둑질을 하러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얘기를 항상 하는데, 나쁜 짓을 해라, 좋은 짓을 해라 하고 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의식도 내 마음에 따라서 응해 줍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악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선업으로도 쓰고, 악업과 선업이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돼서 바로 응신(應身)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신!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응신으로 화(化)해야 응신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이지 무슨 말만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우주적으로나 모든 걸 대응하고 작용하고 중용을 할 줄 알고,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권을 갖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도 가끔 합니다, 제일 빠른 게 그거니까. 만약에, 어저께 납을 속이고 따귀를 때렸다면 오늘 반드시 그 따귀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만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한 시간 전도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사들이 깨우친 것은 바로 과거생 · 현재생 · 미래생을 다 한꺼번에, 그것이 과거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현재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미래생만 있어도 아니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내는 게 없어도 목석일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이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생과 현재생, 미래생 바로 삼세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면서, 삼생(三生)의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라고 한다면,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죠.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는 말로 전달을 하고, 행으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피리란 말이에요, 피리! 우리가 한생각을 깨우쳤다 하면 '여여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소를 타고 여여하게 피리를 불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입니다.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대로 중생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 한생각 돌리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고 보현신입니다. 마음의 도리,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잘들 들으시라고요. 또 노인네는 죽어서 요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올 테니까 들어야 하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로만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테니까 들어야 하고. 그러기에 얘기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오직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구상해서 말겨 놓는다면 그대로 체질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는 까닭에 아기를 잉태할 때 어떠한 형상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원한다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놓고 좀 밝게 태어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부부가 어디다 세워 놔도 괜찮을 정도라면 그대로 두고요. 부부지간에 '나는 간판이 좀 안됐어!' 이랬을 때는 2세를 좀 인물을 좋게 해서 태어나게 하면 어떠냐구요. 이게 마음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의 발전을 이루는 거지, 생활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부딪치는 생활 속에서 마음이 발전해야 바로 진화가 되고, 진화의 능력으로써 바로 창조력을 이끌어서 창조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과학적이게 되는 거죠. 과학도 물질과학이 아니라 심성과학으로써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마음씨를 생각을 해서, 잉태를 해서 한 아이를 갖다가 착 내놨을 때, 어디다 세워 놔도 모순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러고도 일반 과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심성과학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고, 먹어 보지 않고, 잘라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는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 봐야 알죠.

오늘도 스님네들이 잣을 소나무 이파리에다 잘 꿰어서 가져왔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들려군요. 전자에 산에서 살 때, 잣을 따서 깔 때는 손에 그 찐득찐득한 걸 다 묻히면서, 요만큼만 까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어렵게 한 거라 좀 귀해서 그것도 큰 스님네들이나 드셨지, 그 밑의 사람들은 맛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 한 알갱이를 입에 넣으려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 넣었다 이 소립니다. 그거 하나를 볼 때만 해도 그런데…, 요새 살림살이하는 분들은 얼마나 흔하게 씁니까? 잣뿐이 아닙니다. 버섯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도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서 조금씩 해서 양념으로 쓰던 그때, 입에나 넣었습니까, 어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 보지 않고 자기가 겪어 보지 않고는 아까운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돈도 몸소 어렵게 번 돈은 아주 마디게, 쓸 때만 딱딱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냥 흔전만전히 들어오는 돈이라면 흔전만전히 또 나가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기가 더 어렵다고 보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살이를, 삼세를 꿰뚫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인간이 다 됐느냐 한다면, 허! '다 되지 못했다' 할 수도 없고, '다 됐다'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계발이 되면서 자꾸 달라지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자에 모자랐던 것을 채울 수도 있고, 전자엔 잘했는데 타락이 돼서 그 능력이 그냥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도 자유고 악업을 쌓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될 수 있으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악업을 쌓으면 대대로 악업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선업을 쌓으면 대대로 선업이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어떤 생명이든 어떤 물질이든 다 끼리끼리 놓여 있습니다. 끼리끼리 삽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연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이게 돼 있지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물은 나물대로 놓여져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져 있고, 그것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 놓기도 하고, 깡통은 깡통대로 놓여져 있고 무쇠는 무쇠대로 놓여져 있고…. 이거를 가만히,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상만사를 한번 둘러보면, 인간의 차원도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살라고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하되 왜 선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악으로 끌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잘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마음을 내야 알아듣고 즉,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움죽거려 준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업식이 바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의 이 모든 의식들이 바로 화해서 바뀌집니다. 화한다는 건 바꿔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진다는 얘깁니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모두 거기 놔라 하는 것은 내 착한 마음으로 바꿔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과거에 업을 지은 대로 자꾸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말겨 놓고 '과거의 모든 거를 네가 한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할 수 있어'지 '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그럭한다면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생각 하나하나가,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죽고 사는 것도 없어집니다. 육신이야 죽고 산다 하지만 마음이야 어찌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움죽거려지고, 마음으로부터 이 지구가 돌아가고, 마음으로부터 일체 만법이 다 형성되고 돌아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가 깨우쳐서 한마

☞18면으로 계속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의 내 모습 내 모자람으로 보라

모든 걸 대응하고 중용할 줄 알고
어떤 것이든 걸림 없이 자재할 수 있는
대권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563호(2006년2월1일자) 29면 제목 '여러분 한분 한분 태어난게 그대로 화두며 태'는 제작과정 중 실수로 '여러분 한분 한분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며 태초'에서 '초'자가 빠진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앞으로 제작과정에 더욱 정성을 쏟겠습니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모두 거기 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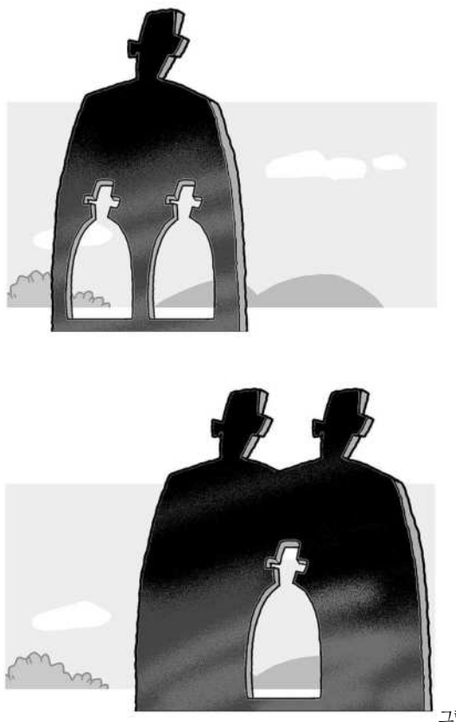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7면에서 계속

음이라면 일체제불 마음도 거기에 한꺼번에 다 속해 있고, 일체 중생, 일체 우주 만물만생이 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움쭉거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 한꺼번에 움쭉거리면서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촉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또는 후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하는 모든 거를 한마음으로 모두 글릴 수 있다, 자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모든 문제들도, 그 영령들도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면 싸움이 있겠지만 한 마음으로 바로 둘이 아니게 놓는다면, 내가 된다면, 둘이 돼야 액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럴 텐데, 하나가 돼 버리니까 혼란이 없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의 업식으로 인해서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도중에 그냥 그 유전으로 인해 영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살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정상인데, 한 몸에 두 사람의 마음이 사니까, 세 사람 마음도 살고, 네 사람 마음도 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금방 딴소리 하고, 금방 딴소리 하고 이러니 그게 이름해서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우리가 정신계의 모든 것을 안다면 100%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계의 50%, 반을 모르기 때문에, 반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다면 그냥 걸림 없이 원을 돌아야 할 텐데, 반밖에 돌 줄 모르니까 반이 막힌 거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마음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거리니까, 그 반에서만 뱅글뱅글 도니까 걸릴 수밖에 없죠. 삼세를 그냥 돌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고, 병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요? 어떤 나쁜 병이라고 병원에서 말한다 해도, 어떤 핑계든지 그런 병이 들어서 오는 원인은 유전성이 될 수도 있고 영계성이 될 수도 있고, 업보성이 될 수도 있고 세균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해결치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를 한데 합쳐서 우리가 100% 응용을 한다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죠. 가만히 보면 "참 애로가 많은데 주인공을 찾아도 아니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지…." 이러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힘이 있든 없든 수억겁 전에서부터 자기를 끌고 왔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님만 연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스님이니까 스님은 자동적으로 벌써 주인공에 첨보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야 죽고 산다 하지만 마음이야 어찌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둑놈들이 다섯이 있다고 합시다. 도둑질하는 놈과 망보는 놈들이 다 도둑놈이지 어떻게 도둑놈이 아닙니까? 지키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물건을 받아 가지고 가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도 도둑놈이죠? 도둑질을 시키는 놈도 도둑놈이죠? 다 도둑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나도 똑같은 놈이란 얘깁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놈이라 이 소립니다. 똑같은 놈이라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허탕으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신으로 화해서 거기에 첨보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미리부터 나는 힘이 없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묘법인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일거일동,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그 살아온 습성 때문에, 살아온 관습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 그만 녹아나는 거죠. 토정비결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더라, 이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또 걸린 거죠. 점을 치니까 또 이런 게 이런 게 걸리지요? 또 누가 지난 일을 잘 맞추는데, 삼재가 들면 모두 그냥 언짢고 망하고 그런다더라 하면 여기에 또 걸리죠. 아예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를 가도 방향을 봐서 가야 된다더라. 이것저것 뭐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거일동이 다 그래요. 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살 생각은 못하고요. 아주 그냥 일거일동…, 머리는 요만한 데다가 그것까지도 전부 넣고 살아가려니 그릇이 꽉 차서, 좋은 것이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불교라는 것이 목탁만 두들기는 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건 생명을 뜻하고 '교(敎)'라는 건 서로 전달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가 불교란 얘깁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그대로 불교고 종교란 말입니다. 여여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라 해서 인간으로 진화돼서 태어났고 "인간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구실을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소 타고 피리 불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고 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다 두고 어디 가서 도를 찾습니까? 역대 조사들한테서요? 역대 경설로 부처를 찾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일 처음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웠더니 인간이 돼 놓고 보니까 살림살이하기가 또 어렵더라. 살림살이를 하려니가 도구를 만들 줄 몰라서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을 했다. 막대기를 사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돌을 갈아서 쓰기도 하고, 뼈로도 그렇게 쓰고…, 그러다 구리가 더 단단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안 되겠으니까 또 철을 쓰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마음의 진화까지 바라게 된 겁니다, 마음의 진화! 이 모습은 일단 사람으로 진화가 됐으니까, 이제 정신적인 진화가 돼야 발전이 되고 창조력이 생기고 만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대권(大權)을 얻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족한 거는요, 마음의 정신세계를 판단치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지금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포착했다면, 과학자들한테 가고 옴이 없이 전달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딴 데다 지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서 부족한 재료를 딴 데서 끌어들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죠. 수명이 짧은 것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으로선 첨단의 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한 몸뚱이도 지탱을 못하고 이렇게 간대서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자꾸자꾸 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진화를 시키고, 마음의 계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 보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 중요한 재료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체험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안 해 보면 모릅니다. 아까 내가 잣 얘기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해 보지 않는다면 귀한 줄 모르고, 즐거운 줄 모르고 자유스러운 줄도 모릅니다. 생활고를 모른다면 그 고를 시원하게 대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를 알아야 고를 해결하죠. 고라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대치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목이 컬컬하고 춥고 배고플 때 뜨거운 엽차 한 잔을 얻어먹는다면, 한번 보세요. 뜨거운 줄 아니까 시원한 맛이 나지, 뜨거운 걸 모른다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압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디서 오는 줄 알아야 대치를 하죠. 어디서 고가 오는 줄 알아야 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 애고, 업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단 얘깁니다. 그러니 한군데다가 되놓으면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바로 거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 입력이 되면서 그게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하하하…. 딴소리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차에 얘기했습니다. 일체 만물은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의 재료를 가졌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고.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끌어쓰기에 달려 있다고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끌어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떠한 병명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콧방귀를 탁 뀌고 '그건 이름일 뿐이야. 우리 몸속에서 일체 나 아님이 없는 나가 한마음에서 다 작용을 하는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맡겼을 때, 한마음은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이란 건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라면 그냥 담박 꺾어집니다. 이 뜻을 아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 내림이다.

『묘법연화경』 내(內)에는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다.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이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宇宙間)의 법(法)》이며 제이(第二)의 법(法)이 현재 문자(文字)로 전하여진 경(經)으로써 이를 《세간법(世間法)》이라고 한다.



◇ 무량의경 Ⅰ / Ⅱ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一)을 이루게 되면 제삼(第三)의 근본진리(根本眞理)의 법(法)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묘법연화경』은 《우주간의 법》과 《세간법》과 《근본진리의 법》 셋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經)이다.

이러한 경(經)의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이치에 따라 모두 드러낸 것이 『묘법연화경』 해설경이다. 또한 보살도(菩薩道)를 위한 《우주간의 법》을 드러냄으로써 바른 보살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로써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온 묘법연화해설경이니 바른 부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는 바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품 / 방편품 / 비유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모든 종교(宗敎)와 종파(宗派)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잠자리 알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는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새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도서출판 阿那



불자 세상보기

최 훈 동
한별정신병원장

발바리와 물 없는 목욕

관악산 다람쥐를 연상케 하는 발바리들이 여성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불특정 여성에게 행해지고 시간대도 여성들이 경계하기 힘든 새벽과 대낮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이다. 연쇄 성폭행범들은 한 번 저지른 범행의 재미에 탐닉하지만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 여성의 공포와 분노, 모멸감과 수치감은 급성 스트레스장애로부터 우울증, 심하면 정신분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사회의 일각에서 보여주는 쾌락과 폭력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끔찍한 범죄자를 발바리라는 애칭으로 표현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성폭행범은 대체로 강간이 아니라고 자신의 행동을 강변하고 성폭행을 반복할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도박의 짜릿한 재미에 맛들이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에 중독되는 것처럼 연쇄 성폭행범들은 섹스에 중독된다. 모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며 성적 환상에 거의 모든 시간을 채운다. 피해 여성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성폭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죄책감도 덜 느낀다.

성폭행범은 남성적 우월감에 빠져 범행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성폭력의 본질은 성적 욕망의 추구에 덧붙여 분노의 표출이다.

이들이 말하는 성폭행의 이유는 일반인이 듣기에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범인의 정신적 내면이 읽혀진다.

"택시 기사로 일할 때 한 여성 승객이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모멸감을 느껴 원룸까지 쫓아가 성폭행으로 보복하였다"는 대전 발바리의 진술에서 어릴 적 느낀 여성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핍된 애정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엿볼 수 있다.

연쇄 성폭행범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성도착증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몰기 쉬우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위험이 크다. 우리의 내면에 널려 있는 끈질긴 감각적 쾌락,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쾌감은 강렬한 유혹이어서 적절한 자제가 매우 어렵다. 이는 단지 양심이 결핍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끝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현대 사회의 병폐이다.

방송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문화에 노출되면서 십대 청소년부터 어느 누구나 성범죄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범죄자들을 성격장애로 진단해버리고 말면 자신의 문제를 성찰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격리시켜야만 하는 남의 일이 되고 만다. 성격과 욕망의 문제는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쉽게 얻기 어렵다. 허지만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창피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것을 치료와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

'홀로 텅 빈 집에 살면서도 스스로를 삼가는 삶은 훌륭하다.' <상윳따니까야>의 가르침이다. <숫타니파타>는 부끄러움을 제어장치로 삼고 진리의 수레를 끌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와 같다. 항상 성찰하는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겸허하여야 유혹이 넘실거리는 욕망의 충동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물 없는 목욕'을 강조하신다. 마음을 목욕하지 않으면 욕망과 분노로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념(正念)으로 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물 없는 목욕이라 하셨다. 거듭되는 연쇄성폭행범의 소식을 접하면서 매사 삼가는 불자의 삶을 기대해 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라. 그리고 나의 몸이 많은 나라에 머물기를 바란다'. 그의 유언에 따라 유해는 49재를 마치고 한국을 포함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 안치될 예정이다. 마치 붓다의 진신 사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은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예술가 중 한명을 만들어냈다. 백남준은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 그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존 핸하르트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의 평가는 적확하고 타당하다.

백남준은 비디오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창조했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 것은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새로운 종교를 창출하는 것만큼 인류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이 명멸했지만 예술의 장르는 겨우 손꼽을 정도다. 백남준의 위대성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고 확장될 것이다.

백남준의 유언

백남준 예술에 동원되는 도구는 첨단 기기들이다. 그러나 그가 구현하고자하는 정신세계는 고전적이고 불교적이다. 현대라는 의자에 걸터앉아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백남준의 예술이다. 첨단 미래를 읽되 교만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우정을 존중하되 혁신과 도전을 사랑했다.

돌발성 · 유머 · 신선한 발상과 통찰력이 그의 정신이다. 그리고 문명에 대한 비판과 걱정도 멈추지 않았다. 세계 곳곳에 뿌려지는 그의 유해와 그의 정신이 인류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그의 몸을 낳은 한국, 그의 정신을 만든 불교가 인류를 위해 아름답게 회향되길 서원한다.

그의 명복을 빌면서 한편으로 우울한 생각 또한 떨칠 수 없다. 그가 만약 한국내에서만 활동한 예술가였다면 그의 성과가 여법하게 평가될 수 있었을까. 황우석 사태라는 시대적 고통이 그의 죽음과 오버랩 된다.

인재를 키우고 인재의 역량을 아끼고 후원하는 자비가 은은하게 펼쳐지길 기원한다. 위대한 예술가 · 성인 · 학자는 그가 발 디디고 있는 토양이 비옥해야 출현할 수 있다. 백남준의 유언을 승화시키고 그의 천재성을 나누어 담는 지혜에 인색하지 말자. 작은 웅덩이 속 행복에 안주하지 말고 미지(未知)를 향해 맨발로 뛰어나가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자. ■ 이우상(소설가)

이렇게 들었다 용서

베풂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풂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들의 안구를 기증하고 가해자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조모(49)씨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은 1월 13일.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들(13)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조씨는 부랴부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가슴에 묻은 조씨에게 병원으로부터 각막이 급히 필요하다는 전갈이 왔다. 조씨는 아들은 어둠의 세상으로 갔지만 다른 이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안구 기증을 결정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조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이모(23)씨가 갓 군대를 제대한 예비 복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을 떠올리면 용서할 수 없었지만 가해자의 미래를 생각해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조씨는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했다.

누구든 쉽게 '나눔'과 '자비'를 말한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조씨 부부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나눔과 자비를 다시 생각해본다.

■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불서읽기운동 적극 펼쳐야

얼마 전 방학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할 불교관련 책들을 고르기 위해 서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들렀다. 예전에는 불교 서적 코너와 기독교 서적 코너의 크기와 도서량이 거의 같았었는데 지금은 불교 서적 코너가 과거의 반 크기로 확 줄어 있었다. 반면 기독교 서적 코너는 더 넓어지고 서가 자판도 베스트셀러, 신간, 성경 등 3개로 늘어나 있었다.

이렇게 불교 서적 코너가 축소된 광경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감정이 일어났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직원에게 상황을 물으니 장기화된 출판 불황으로 불교서적 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불서를 찾는 사람들 보다 기독교 관련 서적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부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불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다.

먼저 '범종단 차원의 불서읽기 운동 전개와 종단과 사찰 단위의 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 또 초하루나 보름 법회, 또는 각종 재일 때마다 불서를 선물하는 분위기 만들기가 보편화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각 사찰에서 불서읽기 운동에 적극적이면 일정량의 불서가 소화되고 자연스럽게 불교출판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데 불서는 없어서는 안 될 수레와 같기 때문이다.

김호식(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종교갈등 유발 언행 신중해야

10원 동전 속의 다보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새 10원 동전을 빠른 시일 내 발행키로 함에 따라 기존 10원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 도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다보탑 도안의 존치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종교단체간 알력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보도는 그 근거로 지난 1966년 다보탑 도안이 채택됐으나 기독교계 등은 불교 예술품인 다보탑 도안이 동전에 채택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져왔다며, 따라서 새 동전 도안 채택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화폐를 도안하고 발행하는 한국은행 발권국은 1966년 현재의 다보탑이 도안된 10원 동전이 발행된 이후 종교계의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보인 셈이다.

현재 전 세계는 종교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때 자칫 종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장은희(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문화재 관리 역량 키우자

오랜만에 불교계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의정부 지방법원이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이 불교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맷돌, 괘불대, 돌계단 및 석축 등 지상 유물, '檜巖(회암)'이라 새겨진 청동발우, 각종 칠기류, 백자 등의 출토유물이 보다 온전하게 보존돼 후손들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 것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불교계의 문화재 관리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교계가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소유권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불교계가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불교문화재는 불교계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혹시 불교계가 문화재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엄태규(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14:00 - 18:00 (12회 과정)
토요반
14:00 - 18:00 (12회 과정)
전 수 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칠차원 생명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빙의 · 해리 치유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SK telecom

"봉사 공연이 필요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 무의탁 노인 돕기 노래 공연 봉사 통인밴 씨



"약국이 아니라 반찬가게냐고 묻곤 해요"
– 무료 반찬 급식 지원 봉사 ○○○ 씨



"깨끗하게 빈 도시락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겄소"
–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 ○○○ 씨



"미소만큼 좋은 희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자원 봉사 안○○ 씨



나누고 더하는 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베푼다는 맘으로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 받은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오랫동안 봉사를 펼쳐오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본받아 세상 곳곳에 나눔의 소중함을 퍼뜨리는 날개가 되겠습니다.

고객행복 OK! SK